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19세기 후반  
스페인 민족주의 음악 연구  
Isaac Albéniz의 『Chants d'Espagne』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고 선 영

2015년 2월

# 19세기 후반 스페인 민족주의 음악 연구

Isaac Albéniz의 『Chants d'Espagne』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박 순 방

고 선 영

이 논문을 음악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고선영의 음악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서명/인

위 원 \_\_\_\_\_ 서명/인

위 원 \_\_\_\_\_ 서명/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4년 12월

# 목 차

그림목차 .....	iii
악보목차 .....	iv
국문초록 .....	vi
<b>I. 서론</b> .....	<b>1</b>
<b>II. 본론</b> .....	<b>3</b>
1. 스페인 역사와 음악 .....	3
1) 스페인 역사 .....	3
2) 스페인 음악의 역사 .....	4
2. 19세기 후반 스페인 민족주의 음악 .....	8
1) 유럽 민족주의 음악의 대두 .....	8
2) 스페인 민족주의 음악 .....	9
3. 알베니즈의 생애와 음악 .....	11
1) 알베니즈의 생애 .....	11
2) 알베니즈 음악의 특징 .....	12
3) 알베니즈 「스페인의 노래(Chants d'Espagne)」 .....	15
4. 스페인 민속음악의 특징 및 구성요소 .....	17
1) 스페인 민속음악과 한국 민속음악 .....	17
2) 스페인 민속음악의 선율 .....	20
3) 스페인 민속 무곡의 리듬 .....	30
4) 스페인 민속 악기 .....	45
<b>III. 결론</b> .....	<b>51</b>

참고문헌 .....	53
ABSTRACT .....	62



## 그림 목 차

[그림 1] 스페인 지역별 무곡 .....	17
[그림 2] 한국 지역별 민요 .....	18
[그림 3] 판당고 그란데 .....	32
[그림 4] 판당고 치코 .....	33
[그림 5] 세기디야 리듬 .....	34
[그림 6] 불레로 리듬 .....	35
[그림 7] 폴로 리듬 .....	35
[그림 8] 론데냐 리듬 .....	37
[그림 9] 불레리아스 리듬 .....	39
[그림 10] 호타 .....	40
[그림 11] 반두리아 .....	40
[그림 12] 라우드 .....	40
[그림 13] 호타 리듬 .....	40
[그림 14] 반도네온 .....	42
[그림 15] 탕퀼로 리듬 .....	43
[그림 16] 하바네라 리듬 .....	44
[그림 17] 플라멩코 기타 .....	47

## 악 보 목 차

[악보 1] 농부가 .....	19
[악보 2] 자진 농부가 .....	19
[악보 3] 멜리스마 선율 .....	21
[악보 4] Albéniz 「Chants d'Espagne」 Prélude 21~24마디 .....	21
[악보 5] Albéniz 「Chants d'Espagne」 Sous le Palmier 34~42마디 .....	22
[악보 6] Albéniz 「Chants d'Espagne」 Córdoba 121~135마디 .....	22
[악보 7] Albéniz 「Chants d'Espagne」 Seguidillas 51~60마디 .....	23
[악보 8] 시김새 .....	23
[악보 9] d 프리지아 선법 .....	24
[악보 10] Albéniz 「Chants d'Espagne」 Prélude 63~71마디 .....	24
[악보 11] e 프리지아 선법 .....	24
[악보 12] Albéniz 「Chants d'Espagne」 Seguidillas 61~69마디 .....	25
[악보 13] g 헝가리 단음계 .....	25
[악보 14] Albéniz 「Chants d'Espagne」 Prélude 175~183마디 .....	26
[악보 15] d 헝가리 단음계 .....	26
[악보 16] Albéniz 「Chants d'Espagne」 Córdoba 53~57마디 .....	26
[악보 17] Albéniz 「Chants d'Espagne」 Córdoba 85~95마디 .....	27
[악보 18] Albéniz 「Chants d'Espagne」 Córdoba 153~163마디 .....	27
[악보 19] d 아랍 음계 .....	28
[악보 20] Albéniz 「Chants d'Espagne」 Prélude 63~78마디 .....	28
[악보 21] e 아랍 음계 .....	29
[악보 22] Albéniz 「Chants d'Espagne」 Seguidillas 61~69마디 .....	29
[악보 23] Albéniz 「Chants d'Espagne」 Orientale 12~16마디 .....	29
[악보 24] Albéniz 「Chants d'Espagne」 Orientale 100~111 마디 .....	30
[악보 25] Albéniz 「Suite Española ,Op.47」 Cádiz 4~10마디 .....	33
[악보 26] Albéniz 「Chants d'Espagne」 Córdoba 91~95마디 .....	34

[악보 27]	Albéniz 「Chants d'Espagne」 Seguidillas 5~8마디	34
[악보 28]	Albéniz 「Iberia」 El Puerto 11~15마디	35
[악보 29]	신고산 타령	36
[악보 30]	Albéniz 「Iberia」 Rondeña 1~4마디	37
[악보 31]	Albéniz 「España」 Malagueña 기타 악보	38
[악보 32]	Albéniz 「España」 Malagueña 피아노 악보	38
[악보 33]	Albéniz 「Iberia」 El Puerto 21~24마디	39
[악보 34]	Albéniz 「Chants d'Espagne」 Orientale 7~11마디	41
[악보 35]	Albéniz 「Chants d'Espagne」 Orientale 126~135마디	41
[악보 36]	Albéniz 「España」 Tango 1~5마디	43
[악보 37]	Albéniz 「Chants d'Espagne」 Sous le Palmier 5~14마디	44
[악보 38]	Albéniz 「Chants d'Espagne」 Sous le Palmier 84~99마디	44
[악보 39]	Asturias	45
[악보 40]	Albéniz 「Chants d'Espagne」 Prélude 1~4마디	47
[악보 41]	Albéniz 「Chants d'Espagne」 Orientale 116~120마디	47
[악보 42]	Albéniz 「Chants d'Espagne」 Córdoba 79~90마디	48
[악보 43]	Albéniz 「Chants d'Espagne」 Orientale 131~141마디	48
[악보 44]	Albéniz 「Chants d'Espagne」 Seguidillas 21~28마디	49
[악보 45]	Albéniz 「Chants d'Espagne」 Córdoba 131~140마디	49
[악보 46]	Albéniz 「Chants d'Espagne」 Seguidillas 102~116마디	50



## 국 문 초 록

19세기 후반 민족주의 음악은 이전까지 음악의 중심에 있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음악 전통에서 독립하려는 움직임으로 스페인을 비롯한 러시아, 체코,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 나타났다. 19세기 유럽에서 유행했던 자국의 음악 요소를 사용해 작곡하는 일반적 경향과는 달리, 민족주의 음악가는 명확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민요나 민속 무곡, 신화, 전설, 역사, 자연 등에서 음악적 소재를 구했다. 오랜 음악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긴 침체기에 머물러 있던 스페인 음악계에서도 자국의 음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속음악을 소재로 새로운 음악 어법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스페인 민족주의 음악의 아버지 펠리페 페드렐(Felipe Pedrell)에게서 알베니즈(Albéniz), 그라나도스(Granados), 파야(Falla)에게로 이어지는 스페인 음악은 다시 한 번 세계 음악의 중심에 서게 된다. 스페인의 대표적 민족주의 작곡가 알베니즈 역시 민속 무곡인 호타(Jota)와 플라멩코(Flamenco), 여기서 발전한 판당고(Fandango), 세기디아(Seguidilla), 폴로(Polo), 론데냐(Rondeña) 등의 다양한 리듬패턴을 음악 소재로 삼았고, 프리지아 선법, 헝가리 단음계, 아랍 음계, 증2도 음정과 짧은 꾸밈음을 자주 사용하여 동양적 색채가 강한 작품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민속 무곡의 반주를 담당하는 기타의 연주법이나 캐스터네츠, 탬버린, 손뼉 치기(palmeo), 발 구르기(zapateado) 등에서 얻어지는 음향 효과까지 표현 기법으로 수용하였다. 이 중에서도 특히 알베니즈의 중요한 음악 소재인 민속 무곡은 스페인의 지리적·지형적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이베리아 반도는 다양한 문화의 유입이 쉬워, 기독교문화와 이슬람문화, 유대문화, 짐시문화 등 여러 문화들이 혼합되어 독특한 스페인 민속 무곡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높은 산맥이 많아 스페인 각 지역의 민속 무곡은 다른 지역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으며 보존될 수 있었고, 그 지역의 특색을 담아 발전될 수 있었는데 이 점은 한국의 민속음악, 특히 민요가 높은 산맥으로 구분되는 서로 다른 자연환경과 토속문화 속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보존, 발전된 것과 유사하다.

알베니즈는 이러한 스페인 민속음악에서 음악적 영감을 받고 소재로 적극 수

용해 자신의 음악 어법으로 승화시켰으며, 스페인 전통과 정신을 담은 스페인 민족주의 음악의 틀을 완성하였다. 알베니즈의 대표적 작품인 「스페인의 노래 (Chants d'Espagne)」에는 이러한 스페인 민족주의 음악 어법이 잘 나타나 있다.



## I. 서론

스페인인 유럽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하면서도 동양적 색채가 진한 음악적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이는 스페인이 지정학적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었고, 역사적으로도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아 복합적인 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토의 3분의 1이 산지이고, 과다라마(Guadarrama) 산맥과 시에라모레나(Sierra Morena) 산맥 등을 중심으로 지역이 분리되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된 여러 문화가 토속 문화와 뒤섞이면서 독특한 분위기와 형식의 스페인 음악이 각 지역별로 발전하고 보존될 수 있었다.

스페인 음악하면 플라멩코와 기타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스페인도 독일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음악에 뒤지지 않을 만큼 오랜 음악 전통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 음악사상 가장 큰 발전을 이룩했던 황금시대 르네상스를 지나고 점차 침체기에 이르게 되었지만, 유럽 여러 나라 보다 신분의 벽이 낮고 문화적으로 대중적인 스페인은 민속 무곡들과 또 하나의 장르인 사르수엘라(zarzuela)를 통해 음악 전통을 이어왔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자국 민속음악의 가치를 깨닫고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독일 중심의 음악 전통에서 독립하여 진정한 의미의 스페인 음악을 만들어 내고자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스페인 민속음악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펠리페 페드렐(Felipe Pedrell)에 와서 보다 구체적인 주장과 노력으로 나타나고 그의 제자인 알베니즈(Albeniz), 그라나도스(Granados), 파야(Falla)에게로 이어지면서 ‘스페인 민족주의 음악’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다.

본 연구는 스페인 민족주의 음악운동을 이끈 대표적 작곡가 알베니즈의 「스페인의 노래(Chants d'Espagne)」에 나타난 민속음악 요소를 찾아서 19세기 후반 스페인 민족주의 음악의 일반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스페인 역사를 바탕으로 스페인 음악이 고대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쳐 왔는가를 살펴보고 19세기 후반 민족주의 음악이 등장할 수 있었던 시대적·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스페인 민속음악 요소와 그 특

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한국 민속음악과의 형식적·정서적 유사성도 찾아보고자 한다. 스페인과 한국은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반도 국가이고,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인해 지역 간 교류가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문화가 형성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슷한 여건에서 스페인 민속음악은 그들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발전하였고, 한국의 민속음악도 한국인의 문화와 삶의 방식이 반영되며 지역별로 전해져왔다. 또한 스페인 문화는 원색적인 정열로 상징된다. 그러나 오랜 기간 정치적·종교적 갈등과 탄압 속에서 고통 받은 스페인 민중의 정서는 한국의 보편적 정서인 한(恨)과 연결된다. 이 한의 정서는 스페인의 칸테 혼도(cante hondo)와 한국의 민요와 같은 각 나라의 민속음악에 나타나며, 이러한 두 나라의 공통 정서를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요소가 바로 선율이다. 선율은 어떤 선법을 사용하고, 음 하나하나를 어떻게 장식하느냐에 따라 슬픔과 기쁨, 즐거움과 애달픔 등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이 선율에다 특정 리듬 패턴(pattern)이 더해져 각 지역별 특색이 담긴 민속음악이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민족주의 음악의 중심 소재인 민속음악을 선율적 요소와 리듬 패턴별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이해하고, 그 밖의 소재인 민속 악기 연주법이나 음향이 어떤 방식으로 알베니즈의 「스페인의 노래」에 수용되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 II. 본 론

### 1. 스페인 역사와 음악

#### 1) 스페인 역사

스페인은 지정학상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었고, 역사적으로도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아 복합적인 문화가 형성된 나라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스페인 역사는 곧 음악의 역사와 직결된다고 말할 수 있으며 ‘19세기 후반 민족주의 음악’ 연구에 앞서 간략하게 스페인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베리아 반도에 인류가 정착한 것은 기원전 80만 년경으로, BC 2만 5천년부터 1만 5천년 사이 것으로 추정되는 알타미라(Altamira) 동굴벽화에 유적이 남아있다. 이베리아 반도에 살았던 것으로 확인된 최초의 종족은 바스크(Basque)족이다. BC 8세기에서 7세기에는 페니키아인(Phoenician), 그리스인(Greeks)이 스페인 지중해 연안지역에 식민지를 건설하였고, BC 7세기에는 유럽 중부 켈트(Celta)족 일부가 피레네 산맥을 넘어 이베리아 반도에 정착하였다. 스페인의 직접적인 선조는 이들 켈트족과 북아프리카로부터 건너온 이베로(Ibero)족이다.

BC 2세기 무렵부터 AD 5세기 초까지 약 6백년간 스페인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5세기에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반달족(Vandalos)과 서고트족(Visigodos)이 이베리아 반도로 이동하여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한다. 그러나 이 왕국은 711년 북아프리카 이슬람교도에 의해 멸망하고 이베리아 반도가 이슬람화된다. 이베리아 반도의 3분의 2는 이슬람교도 지배하에 놓이게 되며 이 시기의 스페인은 경제, 문화적으로 크게 발전하게 된다.

스페인 북쪽을 중심으로 세력 확장하던 기독교인들이 국토회복운동을 시작하고 레온(León), 카스티야(Castilla), 나바라(Navarra), 아라곤(Aragón), 카탈루냐(Cataluña) 등의 기독교 왕국이 탄생한다. 1469년 카스티야 이사벨 1세 (Isabel I)

와 아라곤 페르난도 2세(Fernando II de Aragón)가 결혼함으로써 기독교 왕국은 통합을 이룬다. 그리고 1492년 마침내 그라나다(Granada)가 함락되면서 마지막 이슬람 왕국을 몰아내게 된다. 같은 해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 1451 ~ 1506)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이후 스페인은 남아메리카 대부분과 북아메리카 3분의 1, 필리핀 등을 지배하였고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 포르투갈과 충돌하고 독일, 프랑스 신교와는 종교전쟁을 벌이며 최대의 황금기를 맞는다. 그러나 1588년 스페인 무적함대가 영국에게 패한 후 쇠퇴하기 시작하고 18세기 왕위계승 전쟁, 19세기에는 나폴레옹(Napoléon)의 침략, 지역 간의 독립전쟁, 자유주의자들의 반란을 거치면서 1873년 첫 공화제를 성립한다. 1898년에는 최후의 식민지인 쿠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도 잃게 된다.

20세기 스페인은 군대, 성직자, 대지주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국민은 가난과 핍박 속에 놓인다. 1936년 선거에서 좌익 정권이 성립되자 보수 우익세력의 지지를 받은 프랑코(Franco)가 반란을 일으키고, 스페인 내전(1936~1939)이 발발한다. 이후 프랑코가 스페인 내전을 승리로 마감하면서 36년 동안 공포 독재 정치를 펼친다. 1975년 프랑코 사망 후, 후안 카를로스 1세(Juan Carlos I)가 즉위하고 이후 민주주의가 시작된다. 이렇듯 스페인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사회구조의 변화를 겪어왔고 이들은 스페인 음악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 2) 스페인 음악의 역사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 스페인은 그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을 통해 여러 민족이 이동, 정착하였으며 이들의 다양한 문화는 스페인 전통문화와 혼합되어 독창적인 스페인 음악을 형성하였다. 스페인 음악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기는 대략 중세기 이후부터이다.

### (1) 스페인 중세기 음악

스페인 중세기 음악은 모사라베(Mozarabe) 성가와 안달루시(Andalusi) 음악, 세파르디(Sefardi) 음악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모사라베(Mozarabe) 성가<sup>1)</sup>는 스페인 고유의 전례(典禮)음악으로 그레고리오

성가(Gregorian chant)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서고트의 고문서 속에서 발견된다. 기원후 2세기경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시기에 발생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스페인 민중음악의 모태로 일컬어진다. 모사라베 성가는 11세기 부르고스(Burgos) 공의회<sup>2)</sup>의 결정으로 전면사용 금지되어 로마 그레고리오 성가를 스페인 교회음악으로 사용하게 된다.

다음으로 안달루시(Andalusi) 음악은 이슬람교도들에 의해 전승되어온 음악을 말한다. 755년 압델라만(Abderraman) 1세가 스페인 남부 코르도바(Cordoba)에 도착하여 안달루시아(Andalucia)의 도시를 통치하던 때 형성된 마호메트(Mahammed)<sup>3)</sup> 문화의 영향으로 보는데, 안달루시 음악은 이슬람교도들의 여러 도시와 북아프리카에까지 전파되었다. 안달루시 음악의 새로운 음악 형태인 나하(Nawha)는 모든 작품 연주 시 북이 사용되었으며, 처음에는 아랍(Arab)지역 방언을 쓰다 점차 스페인어로 전환되었다. 안달루시 음악은 기독교 왕 부처(夫妻)에 의해 스페인 영토가 재탈환 된 이후 점차 사용 영역이 축소되어 북부 아프리카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로망스(Romance)’<sup>4)</sup>의 기원이 되는 세파르디(Sefardi)<sup>5)</sup> 음악은 유대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기원후 70년경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 고국을 떠난 고대 유대인들이 오늘날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에 이르는 지중해 연안에 진출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베리아 반도 내에 정주하면서 창조한 음악을 가리킨다. 유대인의 정신 안에서 아랍 리듬과 스페인어를 사용한 세파르디 음악은 안달루시 음악과 같이 문서형태로 완전하게 보존된 것이 없어 선율을 기록한 정확한 악보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sup>6)</sup>.

- 
- 1) 모사라베(Mozarabe) 성가: 이슬람교도들의 통치하에서 북부 산간으로 이주한 기독교도들의 저항이 컸다. 이로 인해 ‘아랍에 반대하다’는 어원의 모사라베가 생겨나고 스페인 전례음악이 모사라베 성가로 불리게 되었다.
  - 2) 공의회(Councils): 전 세계 기독교 교구 지도자나 그들의 위임자 및 신학자들이 모여 합법적으로 교회의 신조와 원칙에 관한 문제를 의논, 정의, 결정하는 회의이다.
  - 3) 마호메트(Mahammed): 이슬람교를 일으킨 아랍의 예언자로 신에게 계시를 받아 610년경부터 알라에의 귀의(歸依)를 설법, 후에 아라비아 반도를 통합하고 이슬람 국가터전을 구축. 성전은 [코랄]이다.
  - 4) 로망스(Romance): 로망스는 프랑스, 스페인의 서정적인 가곡과 독일의 짧은 기악곡을 가리킨다. 일정한 형식은 없고 스페인 로망스는 주로 전설적 역사적 제재를 다룬 4행시로, 14세기에 나타나 15세기에 유행하였다.
  - 5) 세파르디(Sefardi): 세파르디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살던 유대인의 후예를 일컫는 말로 단수형은 세파르디, 복수형은 세파르디에스(Sefardies)이다.
  - 6) 최선화, 『스페인 현대음악 입문』, 음악춘추사, 2004, pp.20-24.

이러한 스페인 중세기 음악은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역사상 가장 큰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한 밑바탕이 된다.

## (2) 스페인 르네상스 음악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오면서 종교음악뿐만 아니라 세속음악도 크게 발전하고 성악곡과 기악곡이 많이 작곡되어져 스페인 음악의 황금시대(El Siglo de Oro)라고 불린다. 이사벨과 페르난도(기독교 왕 부처)는 스페인 내 모든 무어족을 추방하였고,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였으며, 스페인은 막강한 부를 축적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음악 연주가 활성화되었고 스페인 고유 음악이 중시되었다.

종교 음악에서는 전통적 기법을 존중하고 작곡가의 감정을 절제하였으며, 세속 음악에서는 독창적이고 대중적인 작곡 기법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작곡 기법과 스페인의 예술성은 인근 유럽 국가에 영향을 주었다.

종교음악 작곡가인 빅토리아(Victoria, Tomás Luis de)는 르네상스 종교 음악의 진수라고 평가되는 180여곡에 달하는 작품을 남겼으며, 르네상스 음악을 마무리하고 바로크 양식으로 넘어가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또한 르네상스 폴리포니(Polyphony) 작곡가 모랄레스(Cristóbal Morales, 1500 추정~1553)는 세속음악에는 거의 손대지 않은 종교음악 작곡가로 극히 소수의 작품만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르네상스 시대 스페인 궁정이나 일반 사회에서 사용된 악기로는 오르간과 비우엘라, 하프시코드, 클라비코드, 비올라 계통의 악기, 하프,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등 다양하다. 르네상스 시대 가장 큰 음악적 성과의 하나는 이러한 기악 음악의 발달을 들 수 있고, 특히 오르간 및 건반악기와 비우엘라(vihuela)<sup>7)</sup>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스페인의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라고 일컬어지는 오르가니스트 안토니오 데 까베손(Antonio de Cabezón)은 다성음악 작품들을 자유롭게 새로운 창작음악으로 편곡하는데 그 능력이 뛰어났고 기악변주곡 「트리엔토스(Trientos)」가 유명하다. 비우엘라 연주자이자 작곡가로는 루이스 밀란(Luis

7) 비우엘라(vihuela): 비우엘라는 16세기 스페인 궁정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던 기타의 일종이다.



Milan)과 나르바에스(Luis de Nárvaes) 등이 있다. 또한 시인이며 극작가이자 작곡가인 엔시나(Juan del Encina)는 리듬의 변화와 표현에 있어 일치성을 추구하는 독창성을 보였고, 스페인에서 오랫동안 전승되는 성악곡집 『황실 가곡집(El Cancionero de Palacio)』을 1476년 완성하였다. 『황실 가곡집』에는 종교곡 뿐만 아니라 소박하면서도 스페인의 멋이 살아있는 로망스(Romance), 비얀시코(Villancico)<sup>8)</sup>를 포함한 460여곡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르네상스 음악은 바로크 시대로 접어들면서 점차 발전의 폭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국력 쇠퇴와 사회적 불안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 (3) 스페인 17세기 ~ 19세기 중반 음악

바로크 종교음악은 르네상스 시대와 같은 뛰어난 음악적 성과를 보이지는 못했지만 비교적 르네상스 음악의 형태를 잘 보존하고 있었고, 오르간 음악에서는 화려하고 복잡한 장식과 대조와 같은 풍부한 표현력도 보인다. 간혹 다중합창단의 형태도 등장하고, 기악 음악이 발전하였다. 라우드(laud)나 비우엘라를 위한 작곡은 줄어들고 기타 음악이 발전하였다. 기타 연주자이며 작곡가인 산스(Gaspar Sanz, 1640~1710)<sup>9)</sup>는 바로크 시대 스페인 기타 음악의 이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저서를 남기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스카를라티(Domenico Scarlatti, 1685~1757), 안토니오 솔레르(Antonio Soler, 1729~1783) 등 뛰어난 작곡가들이 등장하였다. 그 중 18세기 가장 중요한 작곡가라 할 수 있는 안토니오 솔레르<sup>10)</sup>의 소나타는 색채가 풍부하고 깊은 애수가 느껴지는 낭만주의 선구적 작품이고, 그의 자유로운 변주곡은 하프시코드의 모든 기교를 구사하며 스페인의 생기, 정열, 애수를 표현하여 스페인 민족주의의 선구자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8) 비얀시코(Villancico): 비얀시코는 15~16세기 스페인의 3, 4성부 가곡으로 비야노(Villano)에서 유래된 전원의 노래라는 뜻. 주로 연애, 목가, 종교, 정치를 제재로 하였고, 대위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간결하고 화성적이다.

9) 산스(Gaspar Sanz): 산스는 스페인 아라곤 태생의 기타 연주자, 오르간 연주자, 작곡가이자 성직자로, 『스페인 기타교본(Instrucción de música la guitatta español)』을 출판하였는데, 이것은 스페인 춤과 음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10) 안토니오 솔레르(Antonio Soler): 솔레르 작품으로는 하프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200여곡, 현악 4중주와 오르간을 위한 5중주 6곡, 2대의 오르간을 위한 콘체르토 6곡, 9개의 미사곡과 5곡의 레퀴엠, 기독교 전례음악 120여곡, 132곡의 비얀시코(Villancico)가 있다. 이중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은 「판당고(Fandango)」이며, 18세기 스페인에서 크게 유행한 3박자의 춤곡으로 프리지아 선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저서로는 『조바꿈의 열쇠 그리고 음악에 대한 옛 이야기』가 있다.

한편, 바로크 시대의 세속음악 중 오페라는 막간극 형태로 시작되어 순수 스페인식 희극 오페라인 사르수엘라(zarzuela)<sup>11)</sup>로 발전하였다. 바로크 시대 희극작가 베가(Félix Lope de Vega)의 「사랑이 없는 숲(La selva sin amor)(1629)」이 스페인의 첫 오페라이고,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는 뛰어난 작곡가와 작품이 나오지 못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후반에 걸친 긴 침체기 속에서도 민속음악을 중심으로 이어져 내려온 스페인 음악 전통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며 도약의 가능성을 제시하게 된다.

## 2. 19세기 후반 스페인 민족주의 음악

### 1) 유럽 민족주의 음악의 대두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자유, 평등, 민족 해방을 이루고자 하는 움직임이 동유럽 여러 나라와 북유럽에서 민족주의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시대적 조류는 음악계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19세기 유럽 음악계에서는 이미 출신 지역의 음악적 요소를 사용해 민족적 정체성을 담아내고자 했고 이를 자신만의 음악 어법으로 수용하였다. 쇼팽은 폴란드 음악의 민속적 요소를 사용하였고, 리스트와 브람스는 헝가리 집시음악을 자신들의 작품에 빈번히 등장시키곤 했다. 1860년 이후인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일반적 경향성을 뛰어넘어 보다 강력하고 새로운 민족주의 음악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어져 오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음악의 지배적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sup>12)</sup>

19세기 후반 민족주의 음악이란 작곡가가 명확한 민족의식을 갖고 민족 고유

---

11) 사르수엘라(zarzuela): 스페인의 국민적 오페라로 대사 부분과 노래 부분 (독창, 2중창, 합창)을 적당히 섞으며 진행한다. 17세기 귀족들의 여흥의 하나로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나, 이탈리아 오페라가 인기를 얻으면서 쇠퇴하였다. 19세기 중반이후 다시 부흥하여 1막 사르수엘라가 유행하였다.

12) 민은기, 『서양음악사(피타고라스부터 재즈까지)』, 음악세계, 2012 pp. 569-570.

의 음악 어법이나 제재를 사용해 민족적 감각의 양식을 창조해 내는 것을 말한다. 민족주의 음악가들은 자국의 민요나 민속무곡을 수집하고 채보하여 그 선율이나 리듬을 그대로 또는 음악 어법으로 분해, 재편성하여 소재로 활용하였고, 자국어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신화, 전설, 역사, 풍속, 자연 속에서 음악적 소재를 구하였다. 그리고 19세기 후반 산업기술 발전으로 개량된 관현악기는 민속적 소재를 보다 더 색채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대표적 민족주의 작곡가에는 러시아의 글린카(Mikhail Glinka, 1804~1857), 발라키레프(Milii Alekseevich Balakirev, 1837~1910), 큐이(César Cui, 1835~1918), 보로딘(Aleksandr Borodin, 1833~1887), 무소르그스키(Modest Petrovich Mussorgsky, 1839~1881), 림스키코르사코프(Nikolai Andreevich Rimskii-Korsakov, 1844~1908), 체코의 스메타나(Bedřich Smetana, 1824~1884), 드보르작(Antonin Dvořák, 1841~1904), 핀란드의 시벨리우스(Jean Sibelius, 1865~1957), 노르웨이의 그리그(Edvard Hagerup Grieg, 1843~1907) 등이 있다.

## 2) 스페인 민족주의 음악

스페인 동·서양의 풍부한 다양한 음악적 유산을 물려받았음에도 국력 쇠퇴와 함께 긴 암흑기를 맞았지만, 그 가운데 앞서 언급한 안토니오 솔레르는 종교 음악과 건반악기를 위한 다수의 작품 속에 민중 지향적 음악 세계를 담아냈다. 스페인 음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민중적 성격이다. 스페인 궁정에 서는 민중들이 즐기는 춤을 추는 것이 흔한 일이었고, 귀족들은 서민들이 모여서 노는 틈 속에서 함께 즐겼으며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정신적인 면에서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스페인 교회나 궁정의 음악, 예술 음악의 역사는 항상 민중의 생기를 흡수하고 지탱되어 왔다.<sup>13)</sup> 이러한 민중 지향적 성격은 펠리페 페드렐(Felipe Pedrell, 1841~1922)에게로 이어지는데, 그는 스페인 민족주의 음악의 아버지로 평가된다. 바르셀로나, 로마, 파리에서 유학한 음악 학자이자 작곡가였던 페드렐은 우선 민족 오페라 운동을 일으켜 스페인 음악을 부활시키고자 하였으며, 스페인 음악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민요적 요소를 작품에 도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의 저서 『우리의 음악을 위해서(Por nuestra musica)(1891)』

13) 하마다 지로(浜田滋郎)·김종만 역, 『스페인 음악의 즐거움』, 세광음악출판사, 1988, p.26.

를 통해 스페인 민족주의 음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런 페드렐의 노력은 알베니즈(Isaac M. F. Albéniz, 1860~1909), 그라나도스(Enrique Granados, 1867~1916), 파야(Manuel de Falla, 1876~1946)에게 이어지는데 그 중 알베니즈는 페드렐의 이상(理想)을 뛰어난 작품으로 구체화한 최초의 작곡가로 다음 장에서 그의 생애와 음악 특징 그리고 그의 피아노 작품 「스페인의 노래」에 대해 살펴보겠다. 알베니즈를 제외한 스페인 민족주의 음악가 그라나도스와 파야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라나도스는 1867년 7월 27일 레리다에서 출생한 스페인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이다. 그라나도스는 페드렐에게 작곡을 배웠고, 파리에서 유학해 베리오에게 피아노를 배웠으며 그 후 파리와 스페인 각지에서 피아노 연주자로 활약하였다. 또한 1901년에는 바르셀로나에 음악학교인 ‘그라나도스 학원’을 설립하여 음악교육에도 힘썼다. 그라나도스는 카탈루냐 지방의 민속색이 풍부한 「스페인 춤곡집」(4권 12곡)과 피아노 모음곡 「고예스카스(Goyescas)(1912)」를 작곡하였으며 교향시 「단테」도 그의 작품이다. 1916년에는 오페라 「고예스카스」의 미국 상연을 위해 도미했다가 귀국하던 중 여객선이 독일 잠수함에 격침되어 1916년 3월 24일, 49세의 나이로 영불해협에서 세상을 떠났다.

다음으로 파야는 1876년 11월 23일 카디스에서 태어난 스페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관현악법에 뛰어났으며, 세계적 명곡을 써서 스페인 악파의 정점을 구축했다고 평가된다.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에게 피아노의 기초를 배웠고, 페드렐에게 작곡을 배웠다. 마드리드 예술원에서는 「허무한 인생(La vida breve)」을 작곡하여 오페라 최고상을 받았고, 피아노 콩쿠르에서도 1등할만큼 피아노 연주 실력도 뛰어났다. 그리고 작곡 공부를 위해 7년 동안 파리에서 유학을 하며 드뷔시, 라벨, 뒤카, 알베니즈 등과 교류하였고 귀국 후 완성시킨 「스페인의 정원의 밤(Noches en los jardines de España)(1915)」은 인상주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다. 그밖에 민족주의적 작품으로는 발레 「사랑은 마술사(El amor brujo)(1915)」와 「삼각 모자(Sombrero de tres picos)(1919)」가 있으며 이후 파야의 작곡경향은 신고전주의로 바뀌었고, 작품으로는 「클라브생 협주곡(1926)」이 있다. 스페인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작품 경향을 보인 파야는 스페인 내란으로 1939년 아르헨티나로 이주해 1946년 11월14일 69세에 생을 마쳤다.

### 3. 알베니즈의 생애와 음악

#### 1) 알베니즈의 생애

알베니즈(Isaac Manuel Francisco Albéniz)는 스페인 카탈루냐(Cataluña)지방 캄프로돈(Camprodon)출생의 스페인 민족주의 작곡가이다.

알베니즈는 1860년 5월 29일 아버지가 세관관리자였던 집안의 1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 네 살이던 1864년 바르셀로나(Barcelona)의 로메아(Romea)극장에서 첫 연주회를 열었다. 1867년 파리 음악원에 입학하고자 했으나 나이가 어려 입학허가를 받지 못하고 1868년 실직한 아버지를 대신해 연주 여행을 다닌다. 1869년에는 마드리드(Madrid)로 이주해 마드리드 음악원에 입학하였으나, 음악원 규율에 적응하지 못한다. 이듬해 음악원에서 나와 연주회를 가졌는데 부모님과 함께한 짝 짜인 일정의 연주회에 불만을 품고 두 번의 가출을 하게 된다.

알베니즈는 1869년 피아노곡 「군대 행진곡(March militar)」을 처음으로 작곡하였고, 그 이후 아메리카로 향하는 배에 밀항하여 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중남미의 푸에르토리코와 쿠바, 미국 등지에서 연주 활동을 하였다. 1876년에는 라이프치히 음악원에 들어가 야다스존(Salomon Jadassohn 1831~1922)과 라이네케(Carl Henrich Carsten Reinecke 1824~1910)에게 사사하였다. 그러나 언어 문제와 집안 재정 사정으로 1877년 마드리드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 후 알베니즈는 모르피(Connt Morphy)백작의 후원으로 브뤼셀 왕립 음악원에 입학하여 브라생(L. Brassin 1840~1884)에게 피아노를, 게바르트(Gebart)에게는 작곡을 배웠으며, 1880년에는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에게 배울 목적으로 부다페스트를 방문하였으나, 리스트가 독일 바이마르에 있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알베니즈는 20세 무렵부터 약 10년간 유럽과 미국에서 피아니스트로서 활동을 하였는데, 알베니즈 연주 경력의 최고 절정기는 1889년에서 1892년까지로 간주되며, 1892년부터는 작곡가로서의 삶으로 전환한다. 1883년에는 그의 피아노제자인 로시나 호다나(Rosina Jordana Lagarriga)와 결혼하면서 방랑의 시기를 끝내게 된다. 또한 페드렐을 만나 작곡을 배움으로써 스페인 음악의 중요성과 가

치를 인식하고 스페인 민속음악과 스페인 음악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작품 세계를 열게 되었다.

1875년 마드리드로 이주한 알베니즈는 단순한 형식의 피아노 소품들을 작곡하고, 이런 그의 작품만으로 1887년에는 연주회를 열기도 하였다. 1889년경에 이르러서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서의 명성을 확실히 쌓게 되었고 대부분의 작품이 출판될 수 있었다. 그해 여름 스페인을 떠나 런던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는데 「마법의 오팔(The Magic Opal)(1893)」을 포함한 몇 편의 오페레타를 작곡해 공연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또한 음악적 성공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알베니즈 스스로 ‘악마의 계약(The Pact of Faust)’이라고 했던 오페라 작품 계약을 맺게 된다.<sup>14)</sup> 아류시인 머니-컷(Francis Money-Coutts)의 대본에 알베니즈가 음악을 붙여 작곡하는 형태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오페라는 작품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알베니즈 오페라 중에서는 후안 발레라(Juan Valera 1824~1905)의 스페인 서간체 소설을 바탕으로 한 「페피타 히메네스(Pepeta Jiménez)」가 호평을 받은 정도에 그쳤다. 1893년 알베니즈는 파리에 거처를 정하고 댕디(Vincent d'Indy 1851~1931), 쇼송(Amédée Ernest Chausson 1855~1899), 뒤카(Paul-Abraham Dukas 1865~1935), 드뷔시(Claude Debussy 1862~1918), 포레(Gabriel-Urbain Fauré 1845~1924) 등과의 교류를 통해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욱 음악적 성장을 하게 된다. 1900년까지 스콜라 칸토룸(Schola Cantorum)의 피아노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어머니의 죽음으로 바르셀로나로 거처를 옮기지만 건강악화로 1902년 다시 파리로 돌아갔으나, 계속되는 투병 생활로 대부분 니스(Nice)에서 보냈다. 이런 상황에서도 1905년부터 3년간 알베니즈 최고의 걸작 「이베리아(Iberia)」를 작곡하였고, 1909년 지병인 신장질환으로 캉보 레뱅(Cambo-les-bains)에서 사망하였다.

## 2) 알베니즈 음악의 특징

알베니즈의 음악적 특징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sup>15)</sup> 초기 작품은

14) 김한림, “I.Albeniz의 「Cantos de España」에 나타난 스페인 민속적 특징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17.

15) [http://en.m.wikipedia.org/wiki/Isaac\\_Albeniz](http://en.m.wikipedia.org/wiki/Isaac_Albeniz) 알베니즈 작품경향 시기 구분 인용

1880년대 중반까지로 전통적인 유럽 음악 양식으로 작곡하였고, 민족주의적 성격은 그리 강하지 않았다. 왈츠(Waltz), 파반느(Pavane), 미뉴에트(Minuets), 마주르카(Mazurka) 등의 즉흥적이고 가벼운 살롱양식(Salon style)의 피아노 작품이 대부분이다.

두 번째 시기는 1880년대 후반 동안으로 스페인 민속음악의 영향이 알베니즈 음악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때이다. 1883년 펠리페 페드렐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알베니즈에게 스페인 민속음악의 전통을 작품에 담아내야한다는 당위성을 심어 주었다. 이에 따라 알베니즈는 1880년대 후반부터 스페인 민속음악 요소를 작품에 담아내기 시작한다. 이 시기 작품 「스페인 모음곡(Suite española)(1886)」<sup>16)</sup>은 모두 스페인의 지방 이름을 곡명으로 하는 8곡의 소품들로 강약의 변화가 많고 섬세하면서도 복잡하다. 이 「스페인 모음곡」은 각 지방의 민속 선율을 잘 살린 작품으로 특히 안달루시아 민속음악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으며 스페인 민족주의적 작곡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고 평가된다.

알베니즈 민족주의 경향 작품은 이국적인 음계를 사용하여 플라멩코 음악을 연상시키는데, 그 중 프리지아 선법(Phrygian mode)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기타 주법을 피아노 작품에 적극 활용하였다. 이 기간 알베니즈는 마드리드에 머물렀고, 짧은 기간임에도 많은 수의 작품을 남기는데 1886년까지 50곡 이상의 피아노 소품을 작곡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1890년대부터 1909년 타레갈 때까지로 볼 수 있다. 「스페인의 노래(Chants d'Espagne)」는 이 시기 작품으로 알베니즈가 두 번째 시기에서 확립한 민족주의 작곡 어법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며, 이런 특색은 후기 다른 작품에도 나타난다. 「스페인의 노래」의 첫 번째 곡인 ‘프렐류드(Prélude)’는 알베니즈 사후에 ‘아스투리아스<전설> (Asturias<Leyenda>)’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으며, 기타음악으로 편곡되어 오늘날까지 연주되고 있다. 그리고 알베니즈의 많은 작품들은 타레가 (Francisco Tárrega, 1852~1909)<sup>17)</sup>에 의해 기타 음악으로 편곡

16) 스페인 모음곡(Suite española), Op. 47: 알베니즈의 피아노 독주곡으로 ‘Granada (그라나다)’ ‘Cataluña (카탈루냐)’ ‘Sevilla (세빌랴)’ ‘Cádiz (카디스)’ ‘Asturias-Leyenda(아스투리아스-전설)’ ‘Aragón (아라곤)’ ‘Castilla (카스틸라)’ ‘Cuba (쿠바)’ 8곡으로 구성된다.

17) 타레가 (Francisco Tárrega): 스페인 기타 연주가이자 작곡가이다. 근대 기타 연주법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며 많은 기타 독주곡과 연습곡을 남겼다. 대표작으로는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 (Recuerdos de la Alhambra)」이 있다.

되어 졌다. 「스페인의 노래」는 알베니즈의 천재적인 창조성이 처음으로 만개한 작품이라고 그의 전기 작가 월터 아론 클락(Walter Aron Clark)은 평가하고 있다.<sup>18)</sup> 파리로 이주한 이후는 프랑스 작곡가들과 교류함으로써 반음계, 교회선법, 긴 페달 포인트 등의 인상주의 음악 특징이 작품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에는 「헨리 크리포트(Henry Clifford)(1895)」, 「페피타 히메네스(Pepita Jimenez)(1896)」와 같은 오페라 작품을 작곡하였으며, 「스페인 광시곡(Spanish Rhapsody)」과 「카탈루니아(Catalonia)」와 같은 관현악곡도 작곡하였으나 알베니즈 피아노 작품에 비해 낮게 평가되어진다.

1990년대에는 브라이트 병으로 고통 받기 시작하고, 작품 경향은 피아노 음악 중심으로 되돌아간다. 1905년부터 1908년 알베니즈의 대표작인 「이베리아(Iberia)」를 작곡하였는데, ‘12개의 새로운 인상들(12 nouvelles impressions)’이라는 부제가 붙는 「이베리아」는 12개의 독립된 피아노곡으로 각 3곡씩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906년부터 1909년 사이에 출판되고 초연되었으며,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풍습, 풍경, 음악 등에 영감을 받아 작곡되어졌다. 「이베리아」는 인상주의 기법과 스페인 민속음악의 특징을 적절히 결합시킨 작품이다.

한편 미완성으로 남겨졌던 「아술레호스(Azulejos)(1909)」와 「나바라(Navarra)(1907)」는 알베니즈 사후 「아술레호스」는 그라나도스, 「나바라」는 테오다드 세베락(Deodat de Severac 1872~1921)에 의해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완성된 작품 중 「아술레호스」는 알베니즈 작품이 지니는 정교함이 유지되지 못했고, 「나바라」는 호타(jota) 리듬에서 기대되는 지속적인 활달함이 부족하다고 평가된다.<sup>19)</sup>

이처럼 알베니즈는 길지 않은 생애동안 스페인 민족주의 음악 어법을 구체화한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민족주의 음악의 일반적 특징은 그가 주요 소재로 사용한 민속음악 요소를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18) [http://en.m.wikipedia.org/wiki/Isaac\\_Alb%C3%A9niz](http://en.m.wikipedia.org/wiki/Isaac_Alb%C3%A9niz)

19) J.Gillespie · 김경임 역, 『피아노 음악』 계명대학교출판부, 2011, p.371



### 3) 알베니즈 「스페인의 노래(Chants d'Espagne)」

지금까지 스페인 민족주의 작곡가 알베니즈의 생애 및 시기별 음악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의 작품 중 피아노곡 「스페인의 노래」는 초기의 낭만적이고 살롱 음악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민족주의적 작곡 경향이 보다 구체화된 작품으로 스페인 민족주의 음악의 일반적 특징을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었고, 그 특징 중 하나인 스페인 민속음악 요소들이 작품 곳곳에 잘 나타나 있었다.

알베니즈의 「스페인의 노래」는 1891년에서 1894년도에 걸쳐 작곡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1892년 바르셀로나에서 출판되었을 때에는 ‘프렐류드’, ‘오리엔탈’, ‘야자수 아래’, 세곡만이 수록되었다가 1898년에 ‘코르도바’와 ‘세기디야스’가 추가되어 현재의 다섯 곡의 모음곡으로 완성되었다. ‘프렐류드’는 「스페인 모음곡(Suite Española), Op.47」의 제 5곡 ‘아스투리아스(Asturias)’와 ‘세기디야스’는 제 7곡 ‘카스티야(Castilla)’와 명칭만 다를 뿐 같은 곡이다. 특히 ‘아스투리아스’는 알베니즈 타계 후 붙여진 ‘전설(Leyenda)’이라는 별칭으로도 유명하다. 알베니즈의 「스페인의 노래」는 「스페인 모음곡」, 「이베리아(Iberia)」와 함께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작품으로, 곡에 나타난 스페인 민족주의 음악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곡 ‘프렐류드(Prélude)’는 3/4박자의 g minor곡으로 Allegro ma non troppo이다. 이 곡은 기타곡을 연상시키는 폰테아도 주법이 전체적으로 사용되었고 라스게아도 주법도 보인다. 또한 d 프리지아 선법과 g 헝가리 단음계, d 아랍 음계가 다양하게 나타나 있으며 빠르게 진행되는 꾸밈음이 더욱 스페인다운 멋을 느끼게 한다.

제 2곡 ‘오리엔탈(Orientale)’은 3/4박자의 서주(introduction)와도 같은 이국적 울림에 이어 3/8박자로 진행되는 d minor 곡으로, 빠르기는 Adagio-Allegretto이다. 제목이 주는 느낌 그대로 동양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곡이며 증2도 음정을 사용한 선율은 이러한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한다. 또한 변형된 호타 리듬과 함께 플라멩코 기타 주법인 폰테아도가 나타나 있다.

제 3곡 ‘야자수 그늘(Sous le Palmier)’은 2/4박자의 E b Major 곡으로 Allegretto ma non troppo이다. 곡 전체에 하바네라 리듬을 사용하여 남국의 정취를 느끼게 하며, 선율에 나타나는 3음의 꾸밈음이 나른하면서도 이국적 분위기

를 더욱 고조시킨다.

제 4곡 ‘코르도바(Córdoba)’는 3/4박자의 Andantino 곡이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위치한 코르도바는 8세기 초 이슬람교도에 의해 정복된 이후 이슬람의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1236년에는 기독교도에 의해 멸망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슬람 문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고, 8세기에 세워진 이슬람교 대사원은 이런 이슬람 문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스페인의 노래」 ‘코르도바’에서는 사원의 종소리를 묘사하는 저음의 울림으로 곡이 시작된다. 이국적이면서 슬픈 선율은 ‘몰락한 이슬람 왕국’을 떠올리게 하며, 여기에 기타연주를 듣는 듯한 폰테아도가 함께 쓰여 스페인 색채를 보다 짙게 느끼게 한다. 또한 탬버린의 트레몰로 주법을 강약의 대조를 주며 사용하여 곡을 한층 더 긴장감 있게 표현하였다. 선율적인 면에서는 d 헝가리 단음계를 사용해 전통적인 음계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리듬적인 면에서는 변형된 형태의 세기디야를 사용하였다.

제 5곡 ‘세기디야스(Seguidillas)’는 3/4박자의 F# Major 곡으로 Allegro molto 이다. ‘세기디야스’는 특히 민속음악의 소재가 매우 다양하게 쓰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곡의 명칭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곡의 곳곳에 세기디야 리듬형이 사용되었고, 전통적 음계 외에 e 프리지아 선법과 e 아랍 음계도 보인다. 그리고 선율에서는 스페인 민속음악 요소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꾸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민속 악기 주법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선 기타의 폰테아도와 라스게아도 주법이 사용되었고, 캐스터네즈 주법을 응용하여 곡이 보다 경쾌하면서도 정열적으로 느껴진다. 또한 간간이 들리는 발 구르기 음향은 마치 눈앞에서 플라멩코 무용수가 춤을 추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한다.

이상에 언급한 내용과 같이 알베니즈 「스페인의 노래」는 피아노 독주곡에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민속음악이라는 소재를 통해 그려냈다. 따라서 제 4장에서는 알베니즈 「스페인의 노래」를 중심으로 그의 피아노 작품에 나타난 민속음악 요소를 찾아내어 스페인 민족주의 음악의 특징을 고찰하기로 한다. 또한 역사적·지리적으로 스페인 민속음악과 비슷한 여건 속에서 생성, 발전된 한국 민속음악의 특징과도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 4. 스페인 민속음악의 특징 및 구성요소

##### 1) 스페인 민속음악과 한국 민속음악

19세기 후반 스페인 민족주의 작곡자들은 자국의 민속음악을 주요 소재로 삼아 창작 활동을 하였다. 스페인에는 전통문화와 역사의 깊이만큼 다양한 음악들이 있는데, 기독교와 함께 꾸준히 발전해온 예술음악과 각 지역별 특색을 담은 민속음악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이베리아 반도는 산맥으로 둘러싸여 효과적인 문화 경계선이 되었으며, 특정한 지역에서 발생된 노래와 춤은 개성과 독특함을 자랑한다.<sup>20)</sup>

[그림 1] 스페인 지역별 무곡



스페인 민속음악이 지형적 영향을 많이 받은 것처럼 한국 민속음악도 높은 산맥들이 문화적 경계가 되어 지역마다 독특한 자연 환경과 생활 풍습 속에서 특성 있게 생성되었다. 한국 민속음악에서 지역적 특색이 강한 대표적 장르는 민요이다.

20) 박일우, 『서유럽의 민속음악과 춤-아일랜드에서 스페인까지』, 한양대학교출판부, 2001, p. 167

[그림 2] 한국 지역별 민요



한 나라의 민속음악이 갖는 특징은 선율과 리듬 패턴(pattern)으로 나누어 여기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스페인 민속음악과 한국 민속음악에서 공통으로 느낄 수 있는 정서는 한(恨)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스페인 칸테 혼도(cante jondo)가 심각한 인생을 노래하여 듣는 이에게 인간의 가장 어둡고 슬픈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서도 민요와 동부 민요 같은 한국 민요는 절절한 한(恨)과 애수(哀愁)를 느끼게 한다. 빠르기에 따라서도 곡의 분위기와 느낌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러한 감정을 이끌어 내는 결정적 요소는 선율이며, 이러한 선율은 선법(mode)과 일종의 장식음인 시김새<sup>21)</sup>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한편 스페인 민속음악의 지역적 특색은 민속 무곡에 나타나는 다양한 리듬 패턴(pattern)으로 설명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러나 한국 민요에서는 서양음악의 리듬과 빠르기(Tempo)를 결합한 개념의 장단 중심이 아니라, 가락에 사용되는 선법과 음을 장식하는 시김새에 더 비중을 두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21) 시김새: 전통음악에서 선율을 이루는 골격음의 앞이나 뒤에서 그 음을 꾸며주는 장식음이나 음 길이가 짧은 잔가락, 올라가는 음, 내려가는 음, 꺾어지는 음을 일컫는 용어이다.

진양조와 중모리 같은 느린 가락과 장단에서는 슬픈 감정을, 중중모리와 자진모리 같은 빠른 가락과 장단에서는 멋들어진 흥을 느낄 수 있으며, 이들은 한 지역 내의 민요에서 서로 짝을 이루는 경우도 많다. 다음에 제시된 「농부가」<sup>22)</sup>가 그 예로, 중모리 장단의 「농부가」와 중중모리 장단의 「자진농부가」가 짝이 되며 이러한 장단이 특정 지역 민요의 특징이라 말할 수는 없다.

[악보 1] 농부가

중모리장단 (♩ = 72~108) 전라도 민요

[받는 소리]

여 여 - 여 - 여 - 루 상 사 - 디 - 요 Fine

1. [메기는 소리]

여보시오농부님네 이내말을 들어보 소 아 - 나 농 부 들 말 들 어 요

2.

남 훈 - 전 달 - 밝 은 밤 순 입 - 금 의 놀 음 이 요 -

[악보 2] 자진농부가

중중모리장단 (♩ = 60~96)

*mf* [메기는 소리]

에 - 헤 에 헤 여 루 상 - 사 디 - 여

[받는 소리]

에 - 헤 에 헤 여 루 상 - 사 디 - 여 Fine

[메기는 소리]

1.

아 - 나 농 부 말 들 어 아 - 나 농 부 야 말 들 어

22) 농부가: 판소리 「춘향가」에서 독립하여 「농부가」라는 이름으로 민요처럼 불리기도 한다.

한국 민요에서의 장단은 특정 리듬 패턴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곡이 담고 있는 감정을 끌고 나가는 흐름결<sup>23)</sup>로 작용한다.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분명한 사실은 민속음악을 선율과 리듬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19세기 후반 스페인 민족주의 음악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민속음악 선율의 특징적 요소와 민속 무곡의 대표적 리듬 패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2) 스페인 민속음악의 선율

스페인 민족주의 음악가들은 자국의 민요나 민속 무곡을 수집하고 채보하였다. 그리고 채보한 선율을 그대로 작품에 사용하거나, 특징적 요소로 분해하여 소재로 활용하는 음악 어법을 구체화시켰다. 이와 같은 스페인 민속음악 선율적 요소는 알베니즈 「스페인의 노래」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1) 멜리스마적 선율

스페인 음악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서구적인 특성과 동양적인 특성의 공존(共存)’이다. 정통 유럽음악의 장·단음계, 균형감 있는 박자와 구조뿐만 아니라 동양적 색채가 느껴지는 비서구적인 요소, 멜리스마적 선율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sup>24)</sup> 가사 한 음절에 여러 음으로 길게 늘어 노래하는 ‘멜리스마(melisma)’는 그레고리오 성가 작곡법으로도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아랍<sup>25)</sup>의 음악을 떠올리게 하는 이국적 특징으로 받아들여진다. [악보 3]의 스페인 민요에서는 두 마디에 걸친 멜리스마를 발견할 수 있다.

23) 흐름결: 음의 장단이나 강약 따위가 반복될 때의 규칙적인 음의 흐름을 말한다.

24) 안영옥, 『스페인 문화의 이해』,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p. 241.

25) 아랍: 통상적 의미에서 아랍은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랍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을 가리킨다. 이들 대부분은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악보 3] 벨리스마 선율

**SERRA DE MARIOLA**

Popular de Valencia

*Allegretto*

Se - rra de Ma - ri - o - la, se - rra de Ma - ri -  
On son les so - ca - rra - res, on son les so - ca -  
o - la, to - ta a flo - re tes, to - ta a flo -  
rra - res, a fer bot - je - - - tes, a fer bot -  
re - tes si, to - ta a flo - re - tes no, to - ta a flo - re - tes.  
je - tes si, a fer bot - je - tes no, a fer bot - je - tes.

(2) 꾸밈음

긴 벨리스마가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스페인 민요는 짧은 ‘꾸밈음’을 넣어 장식하는데 3음이나 4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고 이들은 주로 빠르게 진행하여 스페인다운 독특한 느낌을 표현한다.

알베니즈 「스페인의 노래」에는 [악보 4], [악보 5], [악보 7]과 같이 모르덴트(Mordent, 잔결꾸밈음) 형태의 꾸밈음이 곡 전체에 걸쳐 사용되고 있고, [악보 6]과 같은 짧은 앞꾸밈음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꾸밈음이 그의 작곡 기법에서 얼마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악보 4] Albéniz 「Chants d’Espagne」 Prélude 21 ~ 24마디

63

*cantando largamente ma dolce mf* *poco cresc.* *mf* *sf dim.*

[악보 5] Albéniz 「Chants d'Espagne」 Sous le Palmier 34 ~ 42마디

Musical score for measures 34 to 42 of 'Sous le Palmier'. The score is in 3/4 time and B-flat major. It features a piano accompaniment with various dynamics and articulations.

- Measures 34-35: *a tempo*, *dolce* (piano), *sf* (sforzando). Includes triplets and a circled trill.
- Measures 36-37: *rit.* (ritardando), *cresc.* (crescendo), *pp* (pianissimo), *ten.* (tenuto).
- Measures 38-42: *a tempo*, *pp sempre* (pianissimo sempre), *una corda*. Includes triplets and a circled trill.

[악보 6] Albéniz 「Chants d'Espagne」 Córdoba 121 ~ 130마디

Musical score for measures 121 to 130 of 'Córdoba'. The score is in 3/4 time and D major. It features a piano accompaniment with various dynamics and articulations.

- Measures 121-125: *ff sempre grandioso* (fortissimo sempre grandioso). Includes triplets and a circled trill.
- Measures 126-130: *ff sempre grandioso*. Includes triplets and a circled trill.



[악보 7] Albéniz 「Chants d'Espagne」 Seguidillas 51 ~ 60마디

한편 꾸밈음을 즐겨 사용하는 특징은 한국 민요에도 나타난다. 여러 가지 시김새를 사용해 그 곡의 정서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점이 스페인 민속음악의 특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악보 8]은 한국 민요의 시김새 연주법을 서양식 기보법으로 설명한 것이다. 시김새는 민요뿐만 아니라 궁중음악에도 사용되지만 궁중음악에서는 표현 방법이 조용하며 부드럽고, 민요와 같은 민속음악에서는 다채롭고 화려하다. 예를 들면 같은 요성을 사용할 때도 경기 민요와 남도 민요는 발성과 표현을 다르게 하여 지역적 특색을 느끼게 한다.

[악보 8] 시김새

	• 요성(搖聲):중심음에서 4도나 5도 상행할 때 중심음을 떼다.
	• 퇴성(退聲):제 음보다 약간 높은 음에서 제 음으로 끌어 내린다.
	• 추성(推聲):상행 진행시 낮은 음을 위로 밀어 올린다.
	• 전성(轉聲):상행 진행시 낮은 음을 빨리 굴린다.

(3) 프리지아 선법

민속음악의 선율적 특징의 하나로 선법을 살펴보자면 우선, E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프리지아 선법(Phrygian mode)’이 있다. 아랍, 인도, 동남아시아 음악에서

도 널리 보이는데 서유럽에서는 스페인 음악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스페인 민속음악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악기인 기타 조율이 E-A-D-G-B-E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타와 가장 잘 어울리는 선법이 프리지아 선법임을 알 수 있고, 거의 모든 플라멩코 음악과 노동요, 자장가, 춤곡 등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스페인의 노래」의 작곡자 알베니즈 역시 프리지아 선법을 즐겨 사용했으며, 기타 연주법을 자신의 작곡 기법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중세 교회 선법 중 하나인 프리지아 선법은 억제된 정열과 우수, 관능성과 신비성 등 스페인 음악이 지닌 특징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악보 9]와 [악보 10]은 ‘d 프리지아 선법’과 그 선법이 사용된 알베니즈 「스페인의 노래」 ‘프렐류드(Prélude)’의 일부분을 제시한 것이며, [악보 12] ‘세기디아스(Seguidillas)’에서는 프리지아 선법의 기본 형태인 ‘e 프리지아 선법’ [악보 11]도 찾아볼 수 있었다.

[악보 9] d 프리지아 선법



[악보 10] Albéniz 「Chants d’Espagne」 Prélude 63 ~ 71마디



[악보 11] e 프리지아 선법



[악보 12] Albéniz 「Chants d'Espagne」 Seguidillas 61 ~ 69마디

e 프리지아 선법

(4) 헝가리 단음계

스페인 민속음악에는 프리지아 선법과 함께 ‘헝가리 단음계(Hungarian minor scale)’가 사용되는데, 인도 북부에서 유럽을 거쳐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정착한 집시들의 영향으로 일명 집시단음계라고도 불린다. 헝가리 단음계는 자연단음계에서 제 4음과 제 7음을 각각 반음씩 올린 형태이며 자연스럽게 증2도 음정이 나타난다.

아래 제시된 악보에서 알 수 있듯이 알베니즈 「스페인의 노래」 ‘프렐류드(Prélude)’와 ‘코르도바(Córdoba)’에서는 헝가리 단음계를 주로 사용하였고, 이 음계는 전통적 단음계와는 또 다른 색채와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악보 14]에는 [악보 13]의 ‘g 헝가리 단음계’가, [악보 16], [악보 17], [악보 18]에는 [악보 15]의 ‘d 헝가리 단음계’가 사용되었다.

[악보 13] g 헝가리 단음계

[악보 14] Albéniz 「Chants d'Espagne」 Prélude 175 ~ 183마디

g헝가리 단음계

[악보 15] d 헝가리 단음계

[악보 16] Albéniz 「Chants d'Espagne」 Córdoba 53 ~ 57마디

d 헝가리 단음계

*dolce*

[악보 17] Albéniz 「Chants d'Espagne」 Córdoba 85 ~ 95마디

85 *marcato* d 헝가리 단음계 예외음

91 *rit.* *marcato* 예외음

[악보 18] Albéniz 「Chants d'Espagne」 Córdoba 153 ~ 163마디

153 *rit.* *pp* d 헝가리 단음계 예외음

159 *p* d 헝가리 단음계 예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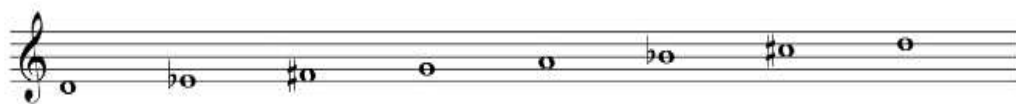
(5) 아랍 음계

스페인 음악의 독특한 분위기를 결정하는 요소로 위에서 언급한 프리지아 선법과 헝가리 단음계 외에 ‘아랍 음계(Arabic scale)’가 있다. 이슬람의 스페인 지배 기간 동안 많은 악기와 음악 이론이 스페인에 유입되어 음악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플라멩코 음악에서 아랍 음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아랍 음계는 마캄(Maqām)이라 표현되기도 하는데 마캄은 7~8세기경에 아랍에 유입된 여러 나라의 선법을 지칭하는 용어에서 아랍 음악 이론의 발달과 함께 음계 또는 전통적인 선율형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악보 20]은 [악보 19]의 ‘d 아랍 음계’가 사용된 예로 전통적인 음계에서 느낄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특히 「스페인의 노래」 ‘프렐류드(Prélude)’에는 아랍 음계와 함께 프리지아 선법과 헝가리 단음계까지 모두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악보 22]는 ‘세기디야스(Seguidillas)’의 일부분으로 [악보 21] ‘e 아랍 음계’가 사용되었다.

[악보 19] d 아랍 음계



[악보 20] Albéniz 「Chants d'Espagne」 Prélude 63 ~ 78마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The image shows a piano score for measures 63 to 78 of Albéniz's 'Chants d'Espagne' Prélude. The score is in G major and 3/4 time. It features the d Arabic scale (D, E, F#, G, A, B, C, D) in the right hand. The left hand provides a rhythmic accompaniment. The score includes dynamic markings such as *mf*, *poco cresc.*, *mf*, *sf dim.*, *mf*, and *sf*, as well as performance instructions like *cantando largamente ma dolce* and *dim. e rit. molto*. A box labeled 'd 아랍 음계' highlights the scale in the right hand. The score is annotated with various fingerings and ornaments.

[악보 21] e 아랍 음계



[악보 22] Albéniz 「Chants d'Espagne」 Seguidillas 61 ~ 69마디

(6) 증2도 사용

스페인 음악에는 ‘증2도 음정’이 자주 등장하며, 헝가리 단음계와 아랍 음계를 사용한 선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빈번한 증2도의 사용은 아랍 음악의 특징이기도 하며, 앞서 언급했듯이 과거 이슬람의 스페인 지배 기간 동안 유입된 악기와 아랍 음악이 스페인 민속음악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 [악보 23]과 [악보 24]는 「스페인의 노래」에 보이는 증2도 음정을 제시한 것이다.<sup>26)</sup>

[악보 23] Albéniz 「Chants d'Espagne」 Orientale 12 ~ 16마디

26) 신은숙, “Albéniz<Cantos d’España Op.232>에 나타난 민속음악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1년, p.52.

[악보 24] Albéniz 「Chants d'Espagne」 Orientale 100 ~ 111 마디

이상의 선율적 요소들은 알베니즈를 위시한 스페인 민족주의 음악가들에게 음악적 영감을 주고 주요 소재가 되었다.

스페인의 민족주의 음악가들처럼 하나의 악파를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민속음악 선율에서 음악적 소재를 찾고 모국어와 역사 속에서 음악을 창조하려는 노력은 한국에서도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안익태 작곡의 「한국 환상곡」은 단군의 개국과 외적의 침략, 항쟁, 광복으로 이어지는 교향적 대서사시이다. 후반부 합창에는 「애국가」의 가락을 사용하였고, ‘만세 만세’라는 가사로 감정을 고조시킨다. 안익태는 한국 환상곡에 부분적으로 한국 민요의 선율을 도입하고자 하였지만, 새로운 기법을 개척하지는 못했다.<sup>27)</sup>

### 3) 스페인 민속 무곡의 리듬

음악적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요소가 선율이라면 그 음악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폭 넓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리듬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외국 작곡가들은 이국적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독특한 율동감을 주는 스페인 음악의 리듬을 자신들의 음악에 도입하기도 하였다.

27)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526098&cid=46663&categoryId=46663>



스페인 음악에는 3박자 리듬이 많은데, 느린 곡은 3/4박자, 빠른 곡은 6/8박자 또는 9/8박자로 되어 있다. 스페인 음악의 리듬은 유럽의 것과는 다른 변칙 악센트, 서로 다른 박자를 교차하여 사용하거나 두 가지 리듬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등 스페인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스페인 음악의 율동감은 멜로디를 받쳐주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민속음악의 ‘장단’처럼 그 자체가 음악 전체의 표정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스페인만의 멋과 맛이 들어간 비이성적 비논리적 요소로 한국 음악의 ‘흥’과 같은 감정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 바로 스페인 음악의 리듬이라 할 수 있다.<sup>28)</sup>

스페인 민속음악은 비교적 지역적 구분이 분명하며 특히 민속 무곡의 리듬은 각 지역을 상징하는 요소로 특징적 패턴을 가지고 전승되었다. 이러한 스페인 리듬은 크게 남부의 다양한 플라멩코 리듬과 북부의 호타 리듬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외국에서 유입된 리듬 중에 비교적 발생지가 분명한 것들을 따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1)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중심

스페인 작곡가들은 남부 안달루시아(Andalucia) 지방의 노래와 리듬을 주로 음악적 소재로 사용하였다. 「스페인의 노래」 작곡자인 알베니즈 역시 스페인 북동부에 위치한 카탈루냐 출신이면서도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음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자신의 음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한 플라멩코(Flamenco)는 스페인의 대표적 민속음악이자 춤이라 할 수 있다.

플라멩코는 칸테(cante 노래), 토케 (toque 음악연주), 바일레(baile 춤)로 구성된다. 중세 유럽에 모습을 나타낸 집시(히타노 gitano)는 15세기에 대륙의 가장 서쪽 이베리아 반도까지 이동하였고, 17~18세기에 걸쳐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정착하게 되는데 집시들은 곳곳에서 그 지역의 전래음악, 무용을 흡수하여 한층 더 특별한 분위기를 갖는 춤을 만들어 냈다. 따라서 플라멩코에는 집시들의 독특한 감성과 각 지역에 남겨진 이슬람 문화의 흔적이 함께 뒤섞여 있다.

칸테(cante)는 남성이나 여성이 코러스 없이 대개 앉아서 독창으로 노래하며,

28) 안영옥, 『스페인 문화의 이해』,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p. 242.

인간의 다양한 감정인 슬픔, 기쁨, 비통함, 환희, 공포가 가사를 통해 표현된다. 바일레(baile)는 기법이 복잡한 편이며 남성은 발을 더 많이 사용하고 여성은 동작이 부드럽고 관능적이다. 토케(toque)는 본래 기타 반주를 가리키나 그 외에 캐스터네츠, 손뼉 치기, 발 구르기 등도 사용된다. 또한 할레오(jaleo)는 청중, 음악인, 댄서가 서로 흥을 돋우기 위한 외침으로 상호교류를 통해 청중들의 열기를 고조시킨다. 이는 한국 민속음악 판소리<sup>29)</sup>의 추임새<sup>30)</sup>와 발림<sup>31)</sup>과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플라멩코는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다시 지역 단위로 세분화되어 특색 있게 발달하였고, 그만큼 다양한 리듬 패턴을 갖는다.

### ①판당고 (Fandango)

‘판당고’란 플라멩코에서 남녀 한 쌍의 무용수가 직접 캐스터네츠를 치며 기타 반주에 맞춰 코플라(Copla) 또는 칸타레스(Cantares)라는 4~5행으로 된 시를 노래하는 3박자계의 빠른 춤과 음악을 가리킨다. 판당고에는 깊고 격한 표현이 사용되며 비교적 자유롭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림 3] 판당고 그란데(Fandango Grande)와 서민적이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명확한 리듬의 [그림 4] 판당고 치코(Fandango Chico)가 있다. 판당고는 18세기 상류 귀족 사이에 유행했으나 그 후 쇠퇴하여 오늘날에는 각 지방의 여러 민속무용의 형태로 전해지며 특히 안달루시아 지방의 판당고가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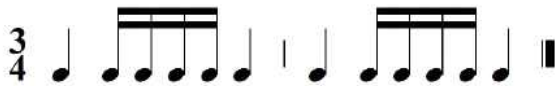
알베니즈 「스페인의 노래」에서는 판당고 리듬을 찾을 수 없었고, 그의 「스페인 모음곡(Suite Española), Op.47」 ‘카디스(Cádiz)’에 나타나 있는 판당고 그란데 리듬을 [악보 25]에 제시하였다.

[그림 3] 판당고 그란데



29) 판소리: 한명의 창자(唱者)가 한 고수(鼓手)의 북장단에 맞추어 서사적 이야기를 소리(창, 노래), 아니리(말), 발림(몸짓)으로 엮어 나가는 극적인 노래이다.  
 30) 추임새: 판소리에서 북장단을 치는 고수가 ‘얼씨구, 좋다, 잘한다’ 등 입으로 소리내는 일종의 감탄사이다.  
 31) 발림: 판소리에서 창자(唱者)가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 손, 발, 온몸을 움직여 노래와 이야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몸짓이다.

[그림 4] 판당고 치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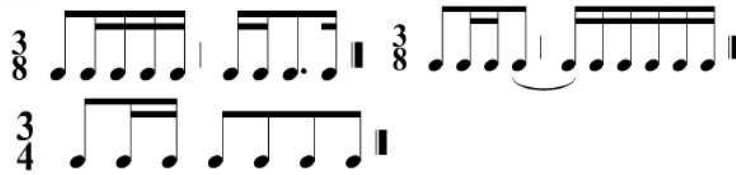
[악보 25] Albéniz 「Suite Española ,Op.47」 Cádiz 4 ~ 10 마디

②세기디야 (Seguidilla)

‘세기디야’는 볼레로와 비슷한 3박자의 리듬으로 볼레로 보다 템포가 빠르고 기타와 캐스터네츠 반주로 노래하고 춤을 추며, 항상 밝은 분위기의 장조로 이루어진다. 선율은 보통 약박에서 시작하며 끝부분 음절은 멜리스마로 표현된다.

[악보 26] 알베니즈 「스페인의 노래」 ‘코르도바(Córdoba)’에는 [그림 5]에 제시된 세 번째 세기디야 리듬에서 16분음표가 셋잇단음표로 조금 변형된 형태로 사용되었고, ‘세기디야스(Seguidillas)’에서는 [악보 27]에 나타난 리듬 패턴이 곡 전체에 걸쳐 사용되었다.

[그림 5] 세기디야 리듬



[악보 26] Albéniz 「Chants d'Espagne」 Córdoba 91 ~ 95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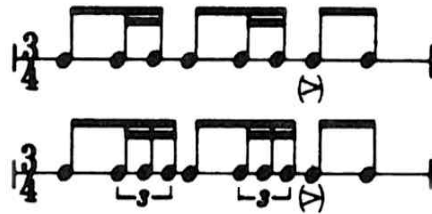
세기디야 변형 리듬

[악보 27] Albéniz 「Chants d'Espagne」 Seguidillas 5 ~ 8마디

### ③볼레로 (Bolero)

‘볼레로’는 18세기말 세기디야에서 발전한 민속 무곡으로 세기디야보다 느린 3박자이며 기본적인 리듬도 같다. 19세기 서구 낭만주의 작곡가들이 이국적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요소로 사용하면서 유럽에 널리 보급되어 가장 익숙하게 느껴지는 리듬 패턴이기도 하다. [그림 6]에 제시된 볼레로 리듬은 곡 전체에 사용함으로써 긴박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적당하다.

[그림 6] 볼레로 리듬



④폴로 (Po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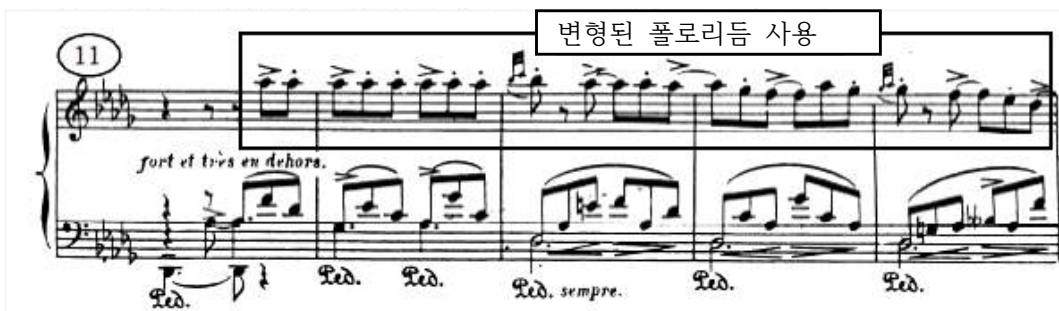
‘폴로’는 헤미올라(hemiola)<sup>32)</sup> 형태의 당김음이 자주 나오는 3박자 계열의 안달 루시아 지방 무곡으로 3/8박자가 많다. 기타에 의한 전주 부분이 있으며, 캐스터네츠, 발 구르기, 손뼉 치기 등이 사용된다. [악보 28] 알베니즈 「이베리아」 ‘항구(El Puerto)’에서는 변형된 폴로 리듬 패턴이 사용되었지만, 「스페인의 노래」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림 7] 폴로 리듬



폴로 변형 리듬

[악보 28] Albéniz 「Iberia」 ‘El Puerto’ 11 ~ 15마디



32) 헤미올라(hemiola): 그리스어 hemiolios에서 유래하는 말로서, 3:2 비율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세 개로 나누어야 하는 길이를 두 개로 나눈 리듬을 말한다.

또한 헤미올라 형태의 변칙적 리듬 패턴은 폴로만이 아니라 스페인 민속음악의 일반적 특징인데, 이러한 헤미올라 리듬은 한국 민요에서도 보인다. [악보 29] 동부민요 「신고산 타령」은 헤미올라 리듬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곡을 더욱 애절하고 긴장감 있게 이끌어가며, 소박한 향토색을 구성지고 멋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악보 29] 신고산 타령

자진모리장단 헤미올라 리듬 함경도 민요

매기는 소리

1. 가을바람 소슬하니 낙엽이 우수수지고 - 요 - -  
 2. 산수갑산 머루다래 얼그러설그러졌는 - 데 - -

장구 재편 12 / 복편 18

받는 소리

어랑 어랑 어허야 어허야 관 디허야

⑤론데냐 (Rondeña)

‘론데냐’는 안달루시아의 도시 론다(Ronda)의 이름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론다의 경쾌한 민속 무곡을 가리키며, 말라가(Malaga)지방의 베르디알레스(Verdiales 관당고의 일종)가 론다에서 독특한 스타일로 발전된 것으로 본다.

[그림 8]은 론데냐 리듬을 제시한 것으로 전형적인 헤미올라 리듬패턴이다. 다음으로 제시된 [악보 30] 「이베리아」 ‘론데냐(Rondeña)’에는 6/8박자에서 3/4박자로 교대하는 변박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이것 역시 론데냐 리듬 패턴이 분명하다.

[그림 8] 론데냐 리듬



[악보 30] Albéniz 「Iberia」 Rondeña 1 ~ 4마디



⑥말라구에나 (Malagueña)

‘말라구에나’는 안달루시아 남부 말라가(Malaga)지방에서 베르디알레스 (Verdiales)와 함께 전해지는 플라멩코의 일종으로 전통적인 판당고에서 파생된 무곡이다. 말라구에나는 3박 계통으로 특징하게 정의된 리듬 형태가 없으며, 매우 자유로운 형식의 무곡으로 기타 독주(solo)가 반주를 맡는다. 알베니즈의 여섯 곡의 소품으로 구성된 모음곡 「스페인 (España), Op.165」 중 세 번째 곡인 ‘말라구에나(Malagueña)’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스페인적 분위기가 짙게 느껴진다. 두 마디의 모티브(Motive)가 단순하게 반복되다가 점점 자유롭고 화려하게 발전하는 이 곡은 말라구에나 춤과 무곡의 특징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악보 31]에는 기타 악보를, [악보 32]에는 피아노 악보를 제시하였다.

[악보 31] Albéniz 「España」 Malagueña 기타 악보

**Allegretto**

*p* m i m i m i p a m i m i m i p a

*marcato il canto*

[악보 32] Albéniz 「España」 Malagueña 피아노 악보

**Allegretto**

*staccato*

*ten. col Pedale*

⑦ 불레리아스 (Bulerías)

‘불레리아스’ 역시 안달루시아의 민속음악으로 플라멩코의 한 형태이다. 불레리아스는 스페인어 ‘부url라(burla)’ 우롱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리듬 패턴은 [그림 9]와 같이 비교적 복잡하다. 또한 플라멩코 여러 리듬 중 가장 기술적이고 빠르며 활기가 넘쳐 관객의 흥을 불러일으키기에 적당하다. [악보 33]은 알베니즈 최고의 걸작이라 불리는 「이베리아」 중 ‘항구(El Puerto)’로 불레리아스 리듬 패턴이 나타나 있다.



[그림 9] 불레리아스 리듬



[악보 33] Albéniz 「Iberia」 'El Puerto' 21 ~ 24마디



(2) 스페인 북부 아라곤 중심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다양한 형태의 플라멩코가 발달한 것과 달리, 북부 아라곤 지방의 무곡과 춤은 호타(Jota)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



① 호타 (Jota)

‘호타’는 스페인 북동부 아라곤 (Aragon) 지방에서 처음 나타난 민속무곡으로 아라곤(Aragon), 나바라(Navarra), 카스티야 레온(Castilla Leon), 발렌시아 (Valencia) 등 여러 지역에서 보인다. 여러 쌍의 남녀가 3/8박자나 3/4박자, 3박자 계열의 정열적이고 경쾌한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형태인데 작곡가 중에는 노래 가사나 안무를 고려하면 6/8박자가 더 적당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음악은 보통 론달라(rondalla)라고 하는 민속적 현악 합주단에 의해 연주되는데, [그림 10]<sup>33)</sup>에서 무용수들 뒤에 보이는 것이 론달라이다. 반두리아(bandurria)<sup>34)</sup>, 라우드(laúd)<sup>35)</sup>, 기타(guitar) 등으로 구성되고, [그림 11]은 반두리아, [그림 12]은 라우드이며, 여기에 무용수의 캐스터네츠와 탬버린이 추가된다.

33) en.wikipedia.org 이미지 인용.

34) 반두리아(bandurria): 스페인에서 쓰이는 현악기로 만돌린과 비슷하게 생겼으며, 현은 모두 12줄이다.

35) 라우드(laúd): 류트(lute). 만돌린과 비슷한 악기로 11현이 표준이고 16세기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유행하였다.

[그림 10] 호타



[그림 11] 반두리아

[그림 12] 라우드



다음으로 제시된 [그림 13]은 호타 리듬으로, 그 중 변형된 리듬 패턴이 알베니즈 「스페인의 노래」 ‘오리엔탈(Orientale)’ 곡 전체에 걸쳐 사용되었고, [악보 34]와 [악보 35]가 그 예이다.

[그림 13] 호타 리듬



변형된 호타 리듬



[악보 34] Albéniz 「Chants d'Espagne」 Orientale 7 ~ 11마디

변형된 호타 리듬

[악보 35] Albéniz 「Chants d'Espagne」 Orientale 126 ~ 135마디

변형된 호타 리듬

(3) 다른 나라 민속음악의 유입

스페인의 민속 무곡과 춤은 남부의 플라멩코와 북부의 호타 외에 다른 나라에서 유입되어 스페인 문화와 혼합된 형태가 있다. 스페인에 들어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토착 무곡과 춤에 흡수되어 대부분이 플라멩코의 한 형태로 발전했지만 기원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도 무곡과 춤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①탕길로(Tanguil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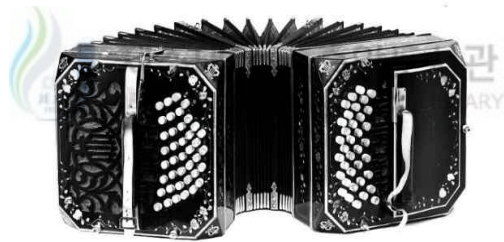
‘탕길로’란 가벼운 탱고(Tango)라는 의미로 스페인 남서부 안달루시아 지역의

카디스(Cádiz)에서 성행하는 춤이다.

‘탱고’는 1880년경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도시 보카(Boca)에서 탄생한 음악으로 19세기 전반 쿠바의 하바나 항구에서 유행한 하바네라(Habanera)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전해지고 여기에 라틴 아메리카 민속음악 요소와 아프리카의 리듬적 요소, 유럽의 춤곡으로부터 받은 영향까지 섞여 있는 복합적인 음악이다. 탱고에는 유럽에서 이주한 항구 노동자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와 가난한 하층민의 정서가 담겨 우울하면서도 격정적이다.<sup>36)</sup>

초창기 탱고의 악기 편성은 기타와 플루트, 바이올린과 클라리넷 등이었으나, 반도네온(Bandoneón)<sup>37)</sup>이 등장하면서 두 대의 반도네온, 두 대의 바이올린, 피아노, 더블베이스가 일반적 편성이 되었고, [그림 14]가 바로 반도네온이다. 탱고의 기본적인 리듬은 2/4박자이며, 1차 세계대전 직전 유입되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스페인에서 유행하였다.

[그림 14] 반도네온



[그림 15]는 탱겔로 리듬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변형되어 사용된다. [악보 36]은 모음곡 「스페인(España), Op.165」 중 두 번째 곡인 ‘탱고(Tang)’의 첫 부분이다. 두 마디에 걸쳐 오른손과 왼손이 교대하는 형식으로 변형된 탱겔로 리듬이 제시되는데 마치 곡의 제목을 암시하는 듯하다.

36) <http://m.navercast.naver.com>, 황윤기, “항구도시의 걱정과 애수 아르헨티나 탱고”.

37) 반도네온(Bandoneón): 탱고음악에서 많이 쓰이는 아코디언(Accordion)의 일종으로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독일인들에 의해 19세기 후반 전파되었다.

[그림 15] 탕겔로 리듬



변형된 탕겔로 리듬



[악보 36] Albéniz 「España」 Tango 1 ~ 5 마디

**Andantino**

변형된 탕겔로 리듬

② 구아지라 (Guajira)

‘구아지라’는 쿠바의 전통음악으로 각운(脚韻)을 갖는 전원적 내용의 가사에 첫 부분은 단조, 두 번째 부분은 장조로 이루어진다. 리듬패턴은 6/8박자와 3/4박자가 교대하는 특징이 있고 곡 전체에 셋잇단음표 음형을 사용함으로써 통일감을 준다.

③ 하바네라 (Habanera)

‘하바네라’는 19세기 전반 쿠바에서 발생하여 스페인에서 유행한 민속 무곡이다. 탱고의 기원과 연결되는 하바네라 리듬은 탱고와 같은 2박자 리듬으로 [그림 16]과 같이 2종의 리듬형이 결합되어 사용된다. 아래 제시된 악보 「스페인의 노래」 ‘야자수 그늘(Sous le Palmier)’에는 곡 전체에 하바네라 리듬이 사용되었다. 기본형에서 변형된 리듬 패턴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바네라 리듬은 남국의 정서를 한껏 느끼게 한다.

[그림 16] 하바네라 리듬



[악보 37] Albéniz 「Chants d'Espagne」 Sous le Palmier 5 ~ 14마디

[악보 38] Albéniz 「Chants d'Espagne」 Sous le Palmier 84 ~ 99마디

#### 4) 스페인 민속 악기

스페인 민족주의 음악가들은 선율, 음계, 리듬 패턴뿐만 아니라 민속 악기를 표현 요소로 활용하여 음색 면에서도 민족성에 접근하고자 시도하였다. 스페인에 역사 깊은 민속 악기들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듯이 한국에도 많은 전통 악기들이 한국의 맥을 이으며 보존되고 있다. 서양 현대 음악 기법과 서양 악기로 동양적이고 한국 전통적인 음색과 미학을 표현하고자 했던 윤이상의 작품에서는 한국 전통 악기와 서양 악기의 결합을 시도한다. 피리는 오보에, 가야금은 하프, 해금은 바이올린, 대금은 플루트처럼 음색이 비슷한 악기를 사용해 한국 전통 악기의 연주법과 독특한 분위기를 담아내는 식이다. 스페인 민속 악기도 각기 특징적인 음색과 연주법을 갖는데 이들 중 플라멩코 기타는 민속 무용의 반주를 담당하는 가장 중심적 악기인 만큼 작곡가들의 중요한 음악적 소재가 되었고 주로 연주법이 작곡 기법으로 활용되었다. 「스페인의 노래」의 첫 번째 곡 ‘프렐류드(Prelude)’, 일명 ‘아스투리아스(Asturias)’는 기타 주법을 연상시키는 대표적 작품이다. 알베니즈의 친구이기도한 타레가에 의해 기타 음악으로 편곡되어 오늘날까지 사랑받고 있으며, [악보 39]는 아스투리아스 기타 악보와 피아노 악보를 함께 제시한 것이다.

[악보 39] Asturias 기타 악보

**Allegro ma non troppo**

*p* *marcato il canto*

Asturias 피아노 악보

Op. 232 Nr. 1

Allegro ma non troppo

또한 스페인 민속 무곡에 반드시 등장하는 플라멩코 기타에는 대표적인 연주법들이 있다. 우선, 반복되는 음들을 손가락으로 줄을 뜯어 연주하는 방식의 푼테아도(punteado)와 손가락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펴면서 줄을 때려 소리 내는 연주법인 라스게아도(rasgueado)가 있다. 그 외에도 일종의 타악기 연주법으로 손가락이나 손마디로 기타 통을 치는 주법들이 있다. [악보 40], [악보 41], [악보 42]는 전형적인 푼테아도 주법을 연상시키는데, 알베니즈 「스페인의 노래」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표현법이다. 또한 [악보 43], [악보 44]에서는 라스게아도를 발견할 수 있었고, [악보 44]에서는 기타 연주법과 함께 발 구르기(zapateado)<sup>38)</sup>를 연상시키는 표현법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악보 45] 「스페인의 노래」 ‘코르도바’에서는 탬버린 트레몰로 연주법을, [악보 46] ‘세기 디야스’에서는 화려하게 반복되는 캐스터네츠 연주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알베니즈를 비롯한 스페인 민족주의 작곡가들은 캐스터네츠, 손뼉 치기(palmeo), 발 구르기와 같은 타악기적인 음향뿐만 아니라 그리또(grito 외침)까지도 작품의 소재로 활용하였다.

이렇듯 민속 악기들의 연주법과 민속 무용을 구성하는 예술적 요소들은 알베니즈와 같은 민족주의 작곡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더욱 다양한 표현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여러 작품에 활용되었다.

38) 발 구르기(zapateado): 스페인 춤에서 구두 바닥으로 마루에 발장단을 맞추는 동작을 가리키며 스페인어로 ‘사빠떼아도’라고 한다.



[그림17] 플라멩코 기타



[악보 40] Albéniz 「Chants d'Espagne」 Prélude 1 ~ 4마디

Op. 232 Nr. 1

Allegro ma non troppo

*mp*

*marcato il canto*

폰테아도 주법

[악보 41] Albéniz 「Chants d'Espagne」 Orientale 116 ~ 120마디

*dim e rit molto*

*a tempo*

*cresc.*

*cresc.*

폰테아도 주법

[악보 42] Albéniz 「Chants d'Espagne」 Córdoba 79 ~ 90마디

Musical score for Córdoba 79 ~ 90 measures. The score is in G minor and 3/4 time. It features a complex, rhythmic melody in the right hand with many triplets and slurs, and a more rhythmic accompaniment in the left hand. A box labeled '폰테아도 주법' (Fontheado fingering) is placed under the right hand staff between measures 85 and 90. The piece ends with a double bar line and repeat signs.

[악보 43] Albéniz 「Chants d'Espagne」 Orientale 131 ~ 141마디

Musical score for Orientale 131 ~ 141 measures. The score is in G minor and 3/4 time. It features a complex, rhythmic melody in the right hand with many triplets and slurs, and a more rhythmic accompaniment in the left hand. A box labeled '라스게아도 주법' (Rasgado fingering) is placed under the right hand staff between measures 136 and 141. The piece ends with a double bar line and repeat signs. Dynamics include *morendo*, *dim.*, *ppp*, and *fff*.

[악보 44] Albéniz 「Chants d'Espagne」 Seguidillas 21 ~ 28마디

발구르기

라스게아도 주법

[악보 45] Albéniz 「Chants d'Espagne」 Córdoba 131 ~ 140마디

탐버린 트레몰로 주법

[악보 46] Albéniz 「Chants d'Espagne」 Seguidillas 102 ~ 116마디

캐스터네츠 주법

### III 결론

19세기 유럽 음악계에서는 출신지역의 민속음악 소재를 사용해 자신만의 음악 어법으로 사용하는 작곡 방식이 유행하고 있었다. 이후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런 일반적 경향성을 뛰어 넘어 작곡가의 분명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민요나 민속 무곡의 선율, 리듬 패턴 등을 활용하고 자국의 신화, 전설, 역사, 자연 속에서 음악적 영감과 소재를 얻어 음악 작품으로 구체화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민족주의 음악이 등장하였다.

모사라베 성가와 안달루시 음악, 세파르디 음악을 비롯한 오랜 음악 전통을 바탕으로 르네상스에 이르러 음악 역사상 가장 큰 발전을 이룩했던 스페인은 이후 긴 침체기를 거친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도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한 플라멩코와 북부 아라곤 지방을 중심으로 한 호타와 같은 민속 무곡들이 스페인적인 분위기와 특징을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그 음악적 전통을 이어왔다. 19세기 후반의 적극적 민족주의는 스페인 작곡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펠리페 페드렐에 와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스페인 민족주의 작곡가들은 스페인의 정신과 전통이 담긴 민속음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민속음악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만들어 내기위해 노력했다. 프리지아 선법, 헝가리 단음계, 아랍 음계와 같은 다양한 음계와 증2도 음정이 많이 나타나는 선율에 빠르게 진행되는 짧은 꾸밈음을 즐겨 사용하였으며, 민속 무곡의 다양한 리듬 패턴과 기타, 캐스터네츠 같은 민속 악기 주법, 손뼉 치기, 발 구르기 등의 음향까지도 소재로 활용하여 스페인적인 색채를 표현했다. 알베니즈의 「스페인의 노래」는 초기의 낭만적이고 살롱음악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민족주의적 작곡 경향이 보다 구체화된 작품으로 스페인 민족주의 음악의 일반적 특징을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모든 나라는 자국의 역사와 전통을 토대로 민족의 정신이 담긴 음악을 계승해 왔다. 그중 가장 적극적이고 진솔하게 민중들의 애환을 표현해 온 것이 민속음악이며, 그만큼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못지않은 긴 역사적 전

통을 가진 우리의 음악, 한국 전통음악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민속음악을 포함한 전통음악의 멋과 맛을 살린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다양한 작품들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김혜선, 『20세기 피아노 음악』, 도서출판 다리, 2010.
- 김혜정, 『서양음악의 흐름』, 도솔, 2003.
- 민은기, 『서양음악사(피타고라스부터 재즈까지)』, 음악세계, 2012.
- 박일우, 『서유럽의 민속음악과 춤-아일랜드에서 스페인까지』, 한양대학교출판부, 2001.
- 박창호, 『세계의 민속음악』, 현암사, 2006.
- 송방송, 『東洋音樂概論동양음악개론』, 세광음악출판사, 1989.
- 신인선, 『20세기 음악』, 음악세계, 2006.
- 안영옥, 『스페인 문화의 이해』,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 이남재 외 공저, 『음악세계 서양음악사:18세기 음악』, 음악세계, 2006.
- 이혜령 외 공저, 『유럽 바로 알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6.
- 최선화, 『스페인 현대음악 입문』, 음악춘추사, 2004.
- 허영한 외 공저, 『(새 들으며 배우는)서양음악사』, 심설당, 2011.
- 이미정, 『이미정의 전공음악』, 도서출판 열린교육, 2006.
- 이강혁, 『스페인역사 다이제스트100』, 가람기획, 2012.
- Rey,M.L·김혜선 역, 『19세기 낭만주의 음악』, 도서출판 다리, 2001.
- Salzman,E·조응순 역, 『20세기 음악사』, 영남대학교출판부, 1992.
- Salzman,E·이찬해 역, 『(20세기)現代音樂』, 수문당, 1999.
- Catherin,D.편저·신정환 역, 『히스패닉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9.
- J.Gillespie·김경임 역, 『피아노 음악』, 계명대학교출판부, 2011.
- 하마다지로(浜田滋郎)·김종만 역, 『스페인 음악의 즐거움』, 세광음악출판사, 1988.
- Friskin,J.and Freundlich,I·전영혜 외 역, 『피아노 음악 문헌』, 음악춘추사, 2001.
- Grout,D.J·민은기 외 5명 역,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이앤비플러스, 2007.

- Kirby,F.E · 김혜선 역, 『건반음악의 역사』 도서출판 다리, 1997.
- Kirby,F.E, · 김혜선 역, 『피아노 음악사:20세기 말까지』, 도서출판 다리, 2003.
- Nettl,B · 삼호출판사 역, 『西洋의 民族音樂』, 삼호출판사, 1989.
- Guerrerro, Pilar Flores · 김수희 역, 『스페인 역사』, 빛샘, 1993.

#### <학위논문>

- 고윤정, “성악작품에 나타난 집시 음악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 김한림, “I.Albeniz의 「Cantos de España」에 나타난 스페인 민속적 특징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손민정, “무슬림 스페인 음악 연구-고대 아라비아가 스페인 음악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오상미, “I.Albeniz의 「Iberia」 I 권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선영, “I.Albeniz의 「Cantos de España Op.232」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윤미, “Enrique Granados: 고예스카스 「Goyescas」에 나타나는 스페인 민속음악적 특징.”,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현정, “19C스페인 피아노 음악의 특징 연구- 「이베리아」, 「고예스카스」, 「스페인 소곡집」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신은숙, “Albéniz<Cantos d’España Op.232>에 나타난 민속음악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년.
- 김영신, “스페인 관광 선택속성에 관한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사전>

- 사전편찬위원회, 『음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96.



사전편찬위원회, 『음악용어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86.

사전편찬위원회, 『음악용어사전』, 현대음악출판사, 2005.

송방송, 『한겨레 음악 대사전』, 보고서, 2012.

변미혜, 『국악용어사전』, 민속원, 2012.

#### <인터넷 검색>

1.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526098&cid=46663&categoryId=4666>

3

2. [http://m.navercast.naver.com/mobile\\_contents.nhn?rid=232&contents\\_id=35586](http://m.navercast.naver.com/mobile_contents.nhn?rid=232&contents_id=35586)

3. [http://en.m.wikipedia.org/wiki/Guajira\\_\(music\)](http://en.m.wikipedia.org/wiki/Guajira_(music))

4. [http://en.m.wikipedia.org/wiki/Isaac\\_Al%C3%A9niz](http://en.m.wikipedia.org/wiki/Isaac_Al%C3%A9niz)

5. [http://en.m.wikipedia.org/wiki/Phrygian\\_mode](http://en.m.wikipedia.org/wiki/Phrygian_mode)

6. [http://en.m.wikipedia.org/wiki/Double\\_harmonic\\_scale](http://en.m.wikipedia.org/wiki/Double_harmonic_scale)

7. [http://en.m.wikipedia.org/wiki/Hungarian\\_minor\\_scale](http://en.m.wikipedia.org/wiki/Hungarian_minor_scale)

8.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928639&cid=43667&categoryId=43667>

[알베니즈의 피아노 작품 목록]

- Marcha militar (군대행진곡) 1869
- Rapsodia cubana (쿠바광시곡) 1881
- Pavana capricho (파반느 기상곡) 1882
- Serenata napolitana (나폴리 세레나데) 1882: 분실
- Fantasia sobre motivos de la jota (호타주제에 의한 환상곡) 1883: 분실
- Barcarola (벃노래) 1884
- Seis pequenos vales (6개의 작은 왈츠) 1884
- Sonata No.1(소나타 1번) 1884: Scherzo만 있음
- Descos, Estudio de concierto (희망, 협주곡 연습곡) 1885
- Dos caprichos andaluces (2개의 안달루시아 기상곡) 1885: 분실
- Dos grandes Estudios de concierto (2개의 큰 협주곡 연습곡) 1885: 분실
- Estudio impromptu (즉흥 연습곡) 1885
- Mazurka (마주르카) 1885
- Marcha nupcial (결혼행진곡) 1885
- Seis Mazurka de Salon (6개의 살롱 마주르카) 1885
1. Isabel
  2. Casilda
  3. Aurora
  4. Sofia
  5. Christa
  6. Maria
- Serenata arabe (아라비아 세레나데) 1885
- Suite ancienne No. 1 (고대 모음곡 제1권) 1885
1. Gavote
  2. Minuetto
- Suite morisca (모로 모음곡) 1885: 분실
1. Marcha de la caravana (방랑자 행진곡)

2. La noche (밤)
3. Danza de las esclavas( 노예들의 춤)
4. Zambra (삼브라)

Siete estudios en los tonos naturales mayores (7개 가장 큰 소리를 위한 연습곡) 1886

Suite española, Op. 47 (스페인 모음곡) 1886

1. Granada (Serenade)
2. Cataluña (Courante)
3. Sevilla (Sevillanas)
4. Cádiz (Canción)
5. Asturias (Leyenda)
6. Aragón (Fantasía)
7. Castilla (Seguidilla)
8. Cuba (Capriccio)

Angustia (번민) 1886

Balbina valverde 1886

Diva sin par (짝 없는 디바) 1886

Minuetto No. 3 (미뉴엣 제 3번) 1886

Sonata No. 2 (소나타 제2번) 1886: 분실

Suite ancienne No. 2 (고대모음곡 제2권) 1886

1. Sarabande
2. Chacona

Suite ancienne No. 3 (고대모음곡 제3권) 1886

1. Minuetto
2. Gavota

Andalucia (안달루시아) 1886~87

On the Water 1886

Recuerdos de viaje , Op. 71 (여행의 추억) 1886~1887

1. En el mar (바다에서)



2. Leyenda (전설)
  3. Alborada (아침의 노래)
  4. En la Alhambra (아랍브라 궁전에서)
  - 5 .Puerta de Tierra (지구의 문)
  6. Rumores de la caleta (만의 소요)
  7. En la playa (모래 툽에서)
- Mazurka de salon (살롱 마주르카) 1887
- Menuet g minor 1887
- Rapsodia española (스페인 광시곡) 1887
- Recuerdos (추억) 1887
- Cortillon (코티용, 살롱춤 앨범) 1887
- Pavana facil para manos pequenqs (작은 손을 위한 파반느) 1887
- Seis anzas españolas (6개의 스페인 무곡집) 1887
- Sonata No. 3(소나타 제 3번) 1887
- Sonata No. 4(소나타 제 4번) 1887
- Sonata No. 5(소나타 제 5번) 1887
- Sonata No. 6(소나타 제 6번) 1888: 분실
- Sonata No. 7(소나타 제 7번) 1888
- Dos mazurka de salon(2개의 살롱 마주르카) 1888
1. Amalia
  2. Ricordatti
- Doce piezas características (12개의 성격 소품) 1888
1. Gavotte
  2. Minuetto a Silvia
  3. Barcarola
  4. Plegaria(기도)
  5. Conchita
  6. Pilar(이정표)
  7. Zambra

8. Pavana
  9. Polonesa
  10. Mazurka
  11. Staccato
  12. Torre Bermeja (붉은 탑)
- La fiesta de aldea (마을의 축제일) 1888
- Dos danzas españolas (2개의 스페인 무곡) 1889
1. Jota aragonesa
  2. Tango
- Suite española, Op. 97 (스페인 모음곡) 1889
1. Zaragoza,
  2. Sevilla,
  3. Cadix-gaditana
  4. Zambra granadina
- Serenata española (스페인 세레나데) 1890
- España, Op. 165. 1890
1. Preludio
  2. Tango
  3. Malagueña
  4. Serenata
  5. Capricho Catalán
  6. Zortzico
- L'Automne(가을) 1890
- Mallorca(마요르카 섬) 1890
- Suenos(꿈) 1890~91
1. Berceuse
  2. Scherzino
  3. Canto de amor
- Zambra granadina(그라나다의 삼브라) 1891

Zortzico(소르시코) 1891

Les Saisons(4계) 1892

1. Le Printemps
2. L'Été
3. L'Automne
4. L'Hiver

Chants d'Espagne, Op. 232, 1894

(Spanish: Cantos de España)

1. Prélude
2. Orientale
3. Sous le palmier
4. Córdoba
5. Seguidillas

España(스페인) 1897

1. Prélude
2. Asturias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The Alhambra(아람브라) 1897

Iberia (이베리아) 1908

[Book 1]

1. Evocación (회상)
2. El puerto (항구)
3. Fête-dieu à Seville (세비야의 성체제)

[Book 2]

4. Rondeña
5. Almería
6. Triana

[Book 3]

7. El Albaicín

8. El Polo
9. Lavapiés
- [Book 4]
10. Málaga
11. Jerez
12. Eritaña

Yvonne en visite (이본느의 방문) 1908

1. La Reverence (존경)
2. Joyeuse Rencontre, et quelques penibles evenembents  
(즐거운 만남과 다소 괴로운 사건)

Azulejos(아수레호스): Enrique Granados가 완성

Navarra(나바라): Déodat de Séverac이 완성



# ABSTRACT

## A Study on Spanish Musical Nationalism in the Late 19th Century

- On the Basis of *Chants d'Espagne* by Isaac Albéniz -

Ko, Sun Young

Major in Piano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As a musical movement, nationalism emerged late in the 19<sup>th</sup> century in some countries, including Spain, Russia, Czechoslovakia, Finland, and Norway. Nationalism in music was a type of independence movement against the dominance of the mainstream classical tradition established by Germany, Austria, and Italy. At that time it was a general trend to use domestic musical elements in Europe. Against this trend, nationalistic composers emphasized national musical elements such as the use of folk songs, folk dances, myths, legends, history, and nature based on a clear national awareness. Spanish music circles, which had experienced a long period of stagnation in spite of a long musical heritage, realized the importance of their own music and tried to create a new musical expression using nationalism in music. Felipe Pedrell was the promoter of Spanish musical nationalism, and was followed by Albéniz, Granados, and Falla. Because of those major representatives, Spanish music became influential in the world again. Albéniz composed his music using various rhythmic patterns. They included both folk dances like jota and flamenco and little-developed patterns like fandango, seguidilla, polo, and rondeña. Also, he created works with a strong oriental color by using the Phrygian mode, the Hungarian minor scale, and the Arabic



scale, frequently augmented second and short grace notes. As an expressive technique, he accepted not only guitar techniques which had been played for folk dances, but also sound effects from castanets, tambourine, palmeo (clapping), and zapateado (stamping the feet). In particular, folk dances which Albéniz considered as an important musical element had deep relevance to geographic and topographic features of Spain. Because diverse cultures flowed smoothly into the Iberian Peninsula connecting Europe to Africa, the unique Spanish folk dances were formed from a mixture of different cultures including Christian, Islamic, Jewish, and gypsy cultures. Also, as each local folk dance was relatively less-affected by other regions because of many high mountains, it was well-preserved and developed with distinct local characteristics. This type of music is similar to Korean folk music, especially folk songs with regional features in different natural environments, and folk culture, which has been preserved and developed also because of high mountains.

Albéniz was inspired by Spanish folk music, and sublimated it to his own music technique as an important musical element. Finally, he created the basis of Spanish nationalism in music carrying the tradition and spirit of Spain. *Chants d'Espagne*, a major work of Albéniz, clearly demonstrates the musical technique of Spanish nationalism.